登錄라－2448號
1988. 11. 9 第 3 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87년 11월 1일 제116호

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가랑비에 온몸 적셔도 興겹던 山行길

羽持와 보람을 만끽한 하루 : 계속 내린 빗속에서도 대성황을 이룬 등산대회는 마냥 즐겁기만 했다. 〈사 진〉 ① 母校 冠岳정문앞에 집결한 山行차림의 동문들. ② 雨裝을 하고 출발한 第1陣. ③ 도시락·포장육등을 配食하는 대회장 입구. ④ 등산대회 행사장(지난해 사진).

冠岳春秋

빗속의 登山대회

10월 18일, 同窓會의 열번째 登山大會가 있었다. 78년 첫회 1백50여명이던 참가인원이 해마다 늘어 작년에는 3천명을 넘어섰기, 올해는 4천명에 육박하리라 예상됐다. 年來의 숙원이던 會館의 건립으로 동창회의 活動이 눈부시게 활성화하고, 會報도 5만부를 헤아리게 됨으로써 동창회에 대한 會員들의 관심과 熱誠이 어느 때보다도 高潮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10월호 本報 첫면의 原色 짙은 등산로 광경은 이번 등산 행사에 직접적인 觸媒劑가 되었으리라.

또한 해마다 준비를 맡아 그때마다 대성황을 이루게 한 동창회 사무처의 치밀한 계획과 熱意에 찬 추진에 各界 동창 有志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史上 최대 최고의 등산대회를 豫見시켰기, 남녀노소의 동창과 그 가족들은 이날을 부푼 가슴으로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다.

그런데 이 어찌하랴. 大會 당일, 아침부터 모시발 같은 이슬비가 곱게 내리더니 차차로 발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9시 冠岳캠퍼스 정문 집합에 맞추려는 참가자들은 定時 전에 벌써 校門 안팎 광장을 완전히 메웠다. 일기예보와 달리 굵어만 가는 빗발은 그러기에 雨備도 제법 갖추지 못한 채 나온 이들에게 雨天順延이란 뚱지서의 문구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先頭를 재촉하여 새로운 理想境의 開拓 행렬인 듯, 목적지를 향하여 발길을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大勢의 흐름을 무엇으로 막으랴.

한창 때를 지나 칙칙해진 闊葉樹의 시든 단풍 사이에 때 늦게 새빨갛게 이 글거리는 고운 단풍잎이 비로 젖은 一行의 마음을 산뜻하게 해 주고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해 준다. 졸졸 흐르는 골짜기물은 그대로 손으로 움켜 마셔도 좋으리만큼 더없이 맑다. 두런두런 이야기 속에 지리한 줄 모르고 오붓꼬붓 굽이진 비탈길을 고개 마루로 오르니, 여기가 母校에서 安養 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이 된다. 빗속의 遠近 경치가 빗물이 흐르는 유리창너머로 보이는 동양화. 갈다. 모든 것이 고요한 속에 흰구름이 골짜기에서 피어 올라서는 산 위로 심심치 않게 떠 올라 간다.

비는 더 굵어져 차차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그래도 처음엔 차끈함을 느꼈으나 그것도 걷는 熱氣로 해서 곧 同化가 되고 만다. 몇해전 인도네시아 발리섬 海水浴場에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따뜻하여 마냥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니와, 外氣가 따뜻함으로 마치 水中 旅行을 하는 느낌이다. 갑자기 넓은 溪谷이 벌어진다. 乾水期라 물은 없지만, 여름장마 때면 제 구실을 단단히 하는 돌 튼개울이다. 急流에 휘말려 내려온 돌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 다소간 피로를 느끼게 된 다리를 쉬는 데 적절한 곳이다. 그래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쉬면서 사진도 찍고 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가다가 멈추면 몸의 熱氣를 뺏겨 寒氣를 느끼게 되기,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山을 오르는 것은 오르는 그 자체에도 뜻이 있지만, 그 途程 이곳 저곳에서 주위의 景觀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데도 못지 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일행들의 저런데 빗속 등산이라 단지 일행들의 저벅저벅하는 발자국에 맞추어 마치 말처럼 앞사람의 뒤만 부지런히 따라 한시라도 목적지에 빨리 닿기를 서두를 뿐이니 단조로운 行脚 일 수밖에 없다.

그저 運命인 양 터벅터벅 걷다 보니 목적지인 母校 農大 樹木園에 닿았다. 하늘이 맑았더라면 우리를 푹신하게 歡迎할 넓은 잔디는 비에 씻겨 한결 淸楚했건만, 일행은 나무를 의지하여 天幕을 치고 물이 흠뻑 밴 옷의 물기를 훔어내리노라 바빴다.

평시 같으면 우선 본부에서 준비해 간 도시락이며 포장육, 술, 음료수, 기념타올을 나누어 받고, 뜻맞는 이들끼리 옹기종기 점심을 마친 뒤, 특별히 초청한 演藝人을 중심으로 餘興이 벌어지고, 紀念品의 추첨 순서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겠기, 점심이 끝나자 곧장 기념품 추첨으로 들어갔다. 崔主鎬 同窓會長과 母校 趙完圭총장의 인사와 격려말씀은 비에 젖은 2천 6백여명의 동창과 가족의 가슴에 따스함과 흐뭇함, 生氣를 불어 넣었다.

開校紀念日인 10월 15일을 중심으로 한 이 年例行事는 봄의 總會와 아울러 同窓會 활성화에 兩支柱를 이루고 있지만, 특히 이것은 가족까지도 참석하는 데 더 큰 意義가 있다.

이번에 6、7명의 대가족과 單科大學 同期會 모임을 겸한 例는 앞으로 더욱 있었으면 한다. 맑은 때 보다도 빗속에 이 큰 행사를 치르느라 애쓴 관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同窓會와 母校의 무궁한 발전을 빈다.

雨天 초월한 參與의 열기

2천6백여명참석 親睦·結束다져

87登山大會 오토바이등 景品도 푸짐

그것은 하나의 奇蹟이었다。同窓會史에 기록될만한…。지난 10월18일 열린 同門親睦登山大會(가족동반 야유회)에는 무려 2천6백여명의 同門·家族이 운집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작년대회때보다도 적은 2천6백여명의 참가인원수를 놓고 감히 奇蹟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다。당일의 날씨가 축축한 가랑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조차 깜짝 놀랄만한 인원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동문들의 이같은 熱誠的인 호응은 바로 우리 母校와 同窓會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날 登山대회는 7시 40여분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집행부측에서는 한때 대회를 연기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곧 杞憂임이 밝혀졌다。대회시작 1시간여 전부터 이 정도의 비쯤은 문제도 안된다는듯 몰려드는 인파로 접수창구가 마련된 冠岳캠퍼스 정문앞은 대회에 참가한 同門·家族들로 곧 장사의 진을 이루었다。조금전 까지의 우려가 대회를 강행하지 않을수 없는 반가운 상황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同窓會에 대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수가…』참가당사자들 조차 놀라와 하는 현실이었다。

등산은 예정시각보다 10분 늦은 9시10분에 대회기를 앞세운 1진을 필두로 출발했다。案內는 西大門中學校의 동문교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맡았다。그뒤 5~6백여명으로 群을 이룬 5개陣이 차례로 출발함으로써 모교 正門앞→冠岳山계곡→安養 農大 부속 樹木園을 잇는 약 6㎞의 등산 코스는 서울대인의 행렬로 길게 꼬리를 이었다。

부슬 부슬 내리는 가랑비를 맞으며 同門의 표현대로 『극기훈련하는 기분』으로 樹木園에 속속 도착한 동문·가족들은 본회에서 제공한 도시락과 包裝肉을 안주삼아 주홍도도한 점심식사를 하였다。

비가 오는 관계로 즉석에서 비닐을 이용한 텐트가 처지는가 하면 사람에 따라 아이디어 또한 백출했다。

이날 崔主鎬회장은 『雨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한후 『오늘의 團合된 힘을 母校發展을 위한 原動力으로 승화시켜 모교가 民族의 大學에서 世界의 大學으로 雄飛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趙完圭모교총장의 격려사가 있은후 崔회장은 禹保命수목원장에게 등산대회를 기념하는 뜻에서 카세트 라디오 1대를 기증했다。

이어 林漢洙동문(誠信女大學生處長)의 재치있는 사회로 餘興및 경품추첨에 들어갔으나 餘興은 비가 오는 관계로 생략되었다。

이날 景品은 각계의 有力同門들로부터 기증된(협찬자 명단 6、7면 참조) 오토바이를 비롯한 洋服地등 30여 품목 3백여점에 달했다。

이날 등산대회는 예정시간보다 30분 앞당겨 2시 30분에 끝을 내고 모교측에서 제공한 버스에 분승、귀가하는 것으로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圓通寺→牛耳庵등반

誠信女大 생활관서 余興즐겨

師大

師大同窓會(회장 朴冠鎬)는 지난 11일 동문가약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친목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참여를 통한 同門상호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師大등산대회는 금년에는 오전10시 牛耳洞 버스종점인 그린파크 正門앞을 출발、圓通寺、牛耳庵을 지나서 誠信女大 생활관인 난향원 잔디밭을 집결지로 했다。

집결지에 도착한 동문들은 도착순서대로 삼삼오오 짝을지어 점심을들며 情談을 나누었고 이후에는 노래자랑、행운권추첨등 흥겨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景品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同門들에게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되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수 있었다。

한편 이날 대회를 위해 金鍾泌동문은 등산모자 1백개와 酒飮料등을 특별찬조하여 行事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年會費 납부실적 好調

10월26일 현재 1억6천만원 入金

事務處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월26일 현재 동창회에 입금된 年會費는 총 1억5천8백73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任員및 會員들의 순수 회비만의 수입으로써 經常外 수입을 제외한 올해 예산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전년 同期와 비교해 볼때 크게 호조를 보인 것이다。

항목별로는 會長團을 비롯한 임원의 특별회비및 분담금이 7천2백27만원으로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一般會員은 8천2백19만원으로 71%를、그리고 신입회원 入會費가 4백27만원(61%)이 입금된 것으로 구분되었다。

일반회비중 직장지부에서는 45개 지부에서 8백99만원이 입금되었고、해외지부에서는 시카고、샌디에고、필라델피아、호주지부에서 1백61만원이 납부되었다。

한편 經常外收入인 회보 廣告料는 8천40만원 예산에 6천3백60만이 입금되어 79%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그외 동문친목 등산대회를 위해서도 1천4백90만원의 찬조금이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동창회 사무처에서는 회비미납동문에 대한 납부독려서신을 이달초에 일제히 낼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짓기 위해서라고 하는데、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4백여 家族 祝祭 펼쳐

同窓의날 행사 體育大會 展示會등 열려

藥大

藥大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11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제7회동창의날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화창한 가을하늘 아래 4백여 동문가족이 참석한 이날 동창의 날 축제는 테니스를 비롯、바둑、등산、축구、발야구、골프등 각종 경기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된 한편 가족 레크레이션、회원이 출품한 추억의 사진전、회원 著書전시가 다채롭게 펼쳐져 흥미를 더욱 북돋았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일본 藥窓會 尹田保회장등 京城藥專동창 9명이 참석、회포를 풀며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李禮植회장은 『연례행사인 동창의날 축제는 동문 선후배、사제지간이 한자리에 모여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호교류를 통한 결속의 기회』라고 말하고 그간 모교발전기금의 모금에 있어 동문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鄭源根약대학장의 축사、원로대표로 金泰鳳전 대한약품판매협회장이 격려사를 했으며、작년 우승팀인 강남지부의 우승기 반환、17회 金熙中동문의 바둑대회 우승배 반환이 있었다。

곧이어 尹相徹명예회장에게 감사패와 鄭源根학장의 취임축하패 전달에 이어 金興植동문의 선수선서가 있은후 각종 게임이 펼쳐졌다。

이날 동창의 날에는 5년만에 새로 제작한 회원명부를 배부했으며 게임이 끝난후에는 교수식당에서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또 이날 축제에서는 여약사동문들의 모임인 月桂會에서 1일자선다방을 열어 그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했다。

이날 단체전에서 우승한 팀은 ▲등산에서 10회 ▲축구 부천지부 ▲발야구 모교 교수팀 ▲바둑 A조 26회、B조28회 ▲골프 16회가 각각 차지했다。

「百年史」자료집 發刊財源 모금

法大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百年史발간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法大百年史자료집 1집(光復前5年)발간에 이어、자료집 2집 발간을 위한자료수집과 함께 자료집발간에 따른 재원협조를동문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法大百年史자료집 발간을 위한 대부분의 재원은 동창회 일반회계 예산과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상당액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百年史발간을 위한자료제공은 물론 전동문의 재원협조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것。

同위원회에서는 百年史자료집 발간을 위해 금품을 찬조한 同門에게는 그 고마운 뜻을 기리기 위하여 찬조동문의 사진과 방명을 88년 5월중 발간되는 자료집 제2집에 게재키로 했다고 한다。

濠洲支部 정기총회

會長에 朴容喆동문 선출

會費 450달러도 納付

본회 濠洲支部는 지난 6월26일 會員 6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定總을 열고 새회장에 朴容喆동문(52년工大卒)을、총무에 李順英동문(59년美大卒)을 각각 선출했다。

현재 濠洲支部에는 약 80여명의 同門이 年3~4차례의 정기모임을 가지며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는데、지난 20일에는 모국을 찾는 朴容喆회장의 부인을 통해 會費 4백50호주달러(약26만원)를 본회에 납부했다。

同窓행사로 參與폭 넓혀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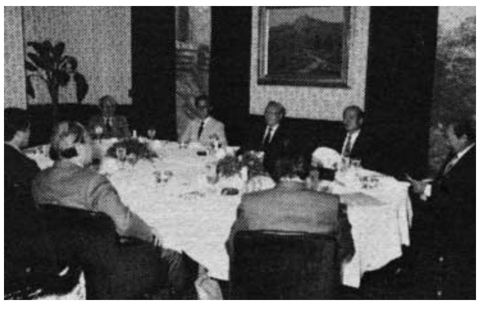
—3천가까운 同門·家族 冠岳山 메워

가랑비가 축축히 내리는 날씨에도 무려 2천6백여同門및家族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룬 지난 18일의 登山大會。老母와 어린이의 손을 이끌고 山行하는 모습에서 우리는「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서울大人의 氣像」을 엿볼수 있었던 뜻있는 行事였다。이날、母校正門을 起點으로 6㎞에 이르는 冠岳山계곡은 단풍과 함께 壯觀을 이룬 登山隊列로 이어졌다。도시락과 불고기、술과 음료、그리고 푸짐한 선물로하여 빗속의 잔치는 한결 차분하면서도 情誼로운 것이었다。이날 참가했던 각계동문 몇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陶醉됐던 일요일 잔치마당

登山참가동문 座談會

=母校에선 急患者위해 救急車 待機=



□日 時：10월 24일
□場 所：서울가든호텔
□參席者：
朴智洙(師大卒·韓國指導者育成장학재단 理事長)
李燦河(經大院卒·大英會計法人 대표)
鄭英彩(保大院卒·中央大교수)
金環東(文理大卒·母校 企劃室長)
金錫營(法大卒·太陽綜合商事 代表)
高泰欽(師大卒·西大門中學 校監)
鄭仁敎(商大卒·朝興銀行 桃花洞支店長)
□司 會：吳寅泳(師大卒·同窓會사무처장)

▲吳寅泳(司會)：바쁘신 시간、더우기 주말에 이렇게 참석해주서서 감사합니다。지난 18일 개최된 친목등산대회는 雨中에도 불구하고 2천6백여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함으로써 다시한번 서울大人의 굳은 結束의 기를 다지게 되었읍니다。主催側으로서 새삼 고마움과 感銘을 받았읍니다。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그 때의 대회를 돌아봄으로써 다음 대회에 대비하여 改善·補完하려는데 意義를 두고 있읍니다。同窓會가 登山大會를 개최케 된 것은 자체 活性化는 물론 同門상호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친목유대를 강화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이제는 汎同窓的인 친목 행사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읍니다。먼저 당일 참가하신 所感을 말씀해주시지요。

▲朴智洙：저는 첫대회부터 이번까지 계속 참가하다보니 그야말로 등산대회의 놀라운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읍니다。장소나 山行코스 등이 친목행사란 점을 고려할때 매우 적당한 것같고… 이번에는 山行안내표시도 그 어느대회보다 잘되었더군요。장님 아닌 이상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한 치밀한 정성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사실 재작년엔가는 길을 잃어 혼난적이 있었지요。저는 나름대로 보행측정기를 준비해 계산을 해보았는데、정문출발지에서 집결지 수목원까지 9천8백보 정도 되더군요。하루 1만보 정도 걷는다는 것은 건강에도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한가지 아쉽다면 처음의 등산대회는 참으로 오붓하고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 좋았는데、점차 대회의 규모가 커지고부터는 참가인원이 많아서인지 山行의 묘미가 다소 반감된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李燦河：등산대회가 개최된 이후 대회당일에 비가 내린 건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가족이 참가했고 또 질서정연함을 볼 때 참가하길 잘했구나 하는보람을 느꼈읍니다。우리동네에는 아침 일찍부터 비가 내려 미리우산을 준비했는데、그덕을 톡톡히 봤읍니다。이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당일 비가 오지 않더라도 雨中을 대비한 준비도 사전 갖추어졌으면 합니다。그리고 사회자께서 등산대회가 동창회의 활성화를 가하고、동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하는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지당한 말씀이라고 여깁니다。여기에 한가지 욕심어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지금까지의 경우 同窓會 關係任員들께서는 본부석에만 자리하셨는데、그럴것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회장을 둘러보고 혹은 여타동문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소주잔도 기울이고 담소도 나누는등 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흥을 돋구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鄭仁敎：저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읍니다。첫 인상으로서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또 하루를 가족과 함께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다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처음 참가한 만큼 前大會와 비교를 할수는 없고 당일 느낀 몇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면、山行에 대한 안내표시는 잘되어 있었지만 등산객이 서울大同門만이 아닌 일반등산객도 상당수 있음을 보았는데、그들과의 구별을 위해、곧 서울대 동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접수때 리본같은걸 배분하여 달면 어떨까 합니다。그리고 집결지에서의 여흥인데、사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재미나게、화목하게 또 즐겁게 하는데는 상당한 테그닉을 要한다고 봅니다。이 점에서 그방면의 전문가를 통한 참신한 기획아래 보다흥겨운 여흥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주최측 동창회의 수고도 수고지만 農大樹木園의 아낌없는 지원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수목원은 희귀樹種의 보호뿐만 아니라 학생·교수들의 研究및 實習場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外部로부터의 엄격한 통제 및 보호를 요하는 만큼 그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서울大人만의 큰 특혜라고 보아집니다。그러한 뜻에서 등산대회가 하루에 끝나고마는 행사에 그칠것이 아니라 영구히 그날의 참가를 기억되게하고 또 수목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겸한 기념식수 같은 것도 고려해 봄만하다고 여깁니다。

6㎞의 등산코스 줄이은 參加人波로 뒤덮여

——雨中에서도 景品추첨땐 환호성 연발

樹木園 협조로 대형天幕을 비상설치

▲司會：좋으신 말씀입니다。사실 주최측인 저희들의 수고야 당연한 것이지만 모교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에는 항상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읍니다。총장님을 위시해서 특히 농대 및 수목원 관계자의 수고、해산하여 귀가할 때의 교통편의지원、돌발사고 및 응급치료를 위한 엠브란스의 대기、그 밖에도 눈에 띄지 않은 사소한 여러가지의 지원을 생각할때 등산대회는 동창회와 모교의 合同作戰에 의해서 치러진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겠읍니다。

▲金環東：처음 준비과정에서부터 당일大會의 진행、그리고 성황리에 마무리 되기까지 애쓰신 동창회 회장단 및 사무처 관계자 모든분께 모교를 代表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어쩌다보니 저도 동창회 理事의 한 사람으로 됐는데、그간 會費는 열심히 냈지만 大會參加는 줄곧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가 이번에야 그 기회를 잡게 되었읍니다。그 소감은 한마디로 감격적이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의 理由가 있기 때문입니다。제가 10여년전에 美國에서 체류하고 있을때의 일입니다。당시 尹天柱총장님과 現 金鏞云부총장등의 일행이 워싱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이 소식을 접한 美國거주 동문들이 환영회 겸 우리도 동창회 한번 해보자고 해서 모임을 주선했었지요。그런데 그때 모인 동문이 20여명도 채 안되어 그야말로 대실망을 하였고 尹총장님 일행엔 송구스럽기 그지없어 시종 진땀을 흘렸어요。그때의 일과 이번의 등산대회、그것도 심한 雨中임에도 그 많은 참가인원을 比較해보니、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나 실로 감격적이라 아니할 수 없었읍니다。司會者께서 學校의 지원에 대해 과다한 감사의 말씀하셨는데、오히려 부족함이 없었나 조심스럽고、이왕 칭찬을 들었으니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을 약속드립니다。조금전 鄭仁教지점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흥의 진행에 있어 전문성을 가지자는 것에 대해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그리고 景品에 대한 추첨인데 단순히 추첨의 幸運에 의해서만 물품을 타갈 것이 아니라 長技자랑이 ↖

歡喜와 情談으로

親睦 도모로 一體感조성에 큰 몫

老母 어린이 앞세운 家族숫자 크게 늘어

도시락 包裝肉 酒飮料 제공에 보람 느껴

◇朴智洙 동문

◇李燦河 동문

◇吳寅泳 동문

◇鄭英彩 동문

◇金環東 동문

◇金錫譽 동문

◇高泰欽 동문

◇鄭仁敎 동문

나 혹은 單科大간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떤 시합을 갖게 한다든가 하여 賞品으로서 施賞함이 전체분위기를 볼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司會：여러가지 기탄없는 고마운 말씀주시니 오늘 이모임의 意味가 더욱 큰것 같습니다. 大會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만한 규모의 행사를 치르자면 사전치밀한 계획수립은 물론 일사불란한 조직적인 活動體系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창회측으로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여 그간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대비할 것입니다. 현재대로의 추세라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鄭英彩：등산대회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동창회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주최측에서 사전에 참가 인원수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인원은 산출하기 어렵다는걸 감안한다면 사실 매행사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부담을 안고 행사를 치른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이번 대회를 두고 보아도 집결시간 전부터 비가 내렸는데도 그렇게 많은 동문이 참가한 것을 볼 때 만일 비가 오지 않았다면 참가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참가인원이 많다는 것은 즐거운 현상이지만 그 숫자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종내는 많은 비난이 주최측에 쏟아질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비가 온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다고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결국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생각할 때 적정한 참가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 大混亂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이에 따라 그 한가지 代案을 말씀드린다면, 景品이나 기타 提供物을 줄여 기념품으로 대체하고 음식물은 동문 각자가 가정에서 마련해 오도록 유도함이 어떨까 합니다. 당일 大會에 대해서인데, 비가 내리기에 지물포에 들려 비니루를 한 10m정도 준비해 갔는데 정말 긴요하게 썼읍니다. 사실 日氣나 그 밖의 상황에 따른 준비는 각자 판단하여 마련하는 것이 좋겠지요. 주최측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전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봐요.

▲金錫譽：여러 선배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 모두 하셔서 달리 말할게 별로 없는 것 같읍니다. 저는 法大 9회인데, 同窓會理事로서 또 法大同窓會 常任理事로서 한 10여년전부터 關係해와 同窓會 일에 유달리 관심이 많고, 주어진 일이 있다면 기쁘게 받고 있읍니다. 同窓會가 회원수가 워낙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번 전체 회원의 모임을 주선하여 동문의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친목을 다진다는 것은, 물론 전 회원이 모두 참가할 수는 없지만 그 기본취지는 높이 평가할만하여 저로선 이를 십분 이해하고 每年 빠지지 않고 참가해 왔읍니다. 사실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도 각기 동창회를 조직하여 고유의 特性을 살리고 또 나름대로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여러행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체행사로 그칠뿐 단과대학간의 교류는 그 누구도 엄두를 못내고 있죠. 이점에서 볼때 등산대회의 행사를 위해 수고가 많은 관계자모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읍니다. 더우기 가족까지 어울리게 함으로써 서울大의 발전된 모습을 널리 알리고 서울大人이란 긍지를 갖게 하는데도 한몫해 여러 측면에서 效果를 거둔다고도 하겠읍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규모가 큰 행사가 되어서인지는 모르나 全體的으로 볼때 더 秩序가 있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읍니다. 몇가지 구체적 예를 들자면 출발선에서 집결지까지 山行시간이 2시간 반쯤 소요되는데, 선두 깃발이 작아서인지 그 대열이 많이 흐트러짐을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큰 깃발을 준비하고, 또 관계임원되시는 분이 손수 고하여 격려하고 이끔면 뒤따르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집결지까지 가뿐 마음으로 잘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高泰欽：저는 동창회로부터 自願奉仕隊 조직의 엄명(웃음)을 받고 자원봉사대원 25명과 함께 등산대회에 참가케 되었읍니다. 그 전날 코스의 事前踏査를 통해 등산로의 확인과 함께 山行안내표시판을 부착해 두었읍니다. 봉사대원 25명은 우선 출발선에서의 旗手 및 접수안내, 음식물등 제공물품의 분배지원, 본부석에서의 경품추첨등의 진행안내등으로 분담하여 수고를 했읍니다. 자원봉사란 임무를 떠나서 이번 대회에서 느낀 것은 가족동반 행사로는 有一無二한데, 특히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만 기념품과 도시락반찬의 내용물이 다소 빈약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서울대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어떤 외경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期待値에 比해 格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등산대회에의 참가야 말로 서울大동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의 하나라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점에서 음식물 제공보다는 영원히 기억될수 있는 기념품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金環東：앞으로는 등산대회 준비를 위한 어떤 委員會를 구성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결시 각 단과대학별로 모이도록 하여 단과대 깃발아래 등산을 하게되면 山行중의 질서도 꽤유지되리라고 봅니다. 또 굳이 식사제공을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해봄직 하고, 오히려 그 비용으로 기념품의 질을 더 높이는 방향을 모색해보면 어떨까요.

▲司會：그동안 每年 大會를 치러오는 모교 캠퍼스로 하는것이죠.

▲李燦河：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의 유·불리가 참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애초 安養으로 가기보다는 3분지 2이상이 직접 母校 캠퍼스로 바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럴바에야 야유회의 명칭으로 직접 학교에 모이는게 낫지 등산으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人員調整에 있어서도 食事提供을 안하면 눈에 확 두드러질 것으로 봅니다. 가족中心의 모임에 있어서 현재의 동원방법은 상당한 유혹(웃음)을 해 좋은 최상의 방법인데, 음식물 제공이 없으면 상당한 인원이 안올 가능성이 있죠.

▲朴智洙：아무래도 山에서 여유있게 마음놓고 즐기는 것이 교정에서 보다야 운치도 있고 즐거움이 더할것 같읍니다. 그리고 사실 제공물이 너무 많아 등산이란 운동으로 살을 빼야 될텐데 오히려 역효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인원 조정에 있어 별도 參加會費를 받는 것도 한방법이라고 봅니다.

▲鄭仁敎：등산대회를 뭘 주고 뭘 받느나 하는 그런 行事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선 가족끼리, 동문끼리 모여 즐길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때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문제에 있어서도 大學이 곧 「象牙塔」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밥먹고 술먹고 떠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司會：장시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를 충분히 새겨서 다음 대회를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행사로 치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산을 받쳐든 채 강행군을 하고 있는 등산대열이 길게 꼬리를 잇고 있다.

祝祭의 자리를 金品協賛으로 빛낸 同門

서울大人의 矜持와 보람을 家族과 함께 즐긴 親睦登山大會。 이날은 日氣예보와는 달리 가랑비가 계속 내린 날씨여서 주최측으로선 罪悚스런 하루였다。 雨中임에도 가족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 코스인 大會場 입구까지 도착한 同門들의 얼굴엔 喜悅과 보람의 표정이 환하게 비쳐고 있었다。 도시락·찐돼지肉·기념품등을 한아름씩 안고 흐뭇해 하는 參加동문들의 표정은 참으로 印象的이었다。 이날 配分한 도시락·포장육등은 有力 동문들의 協賛으로 마련된 것으로 7천여점에 달했다。 金品협찬동문들을 소개한다。

黃源性
41년 藥大卒
本會 理事
태광사노피㈜社長
一金 20만원

鄭壽昌
41년 商大卒
大韓商工會議所 會長
一金 20만원

金寅煥
41년 農大卒
本會 理事
韓國種苗協會 會長
一金 10만원

金埈成
42년商大卒
本會 常任顧問
㈜三星電子 會長
카세트 녹음기 10個

崔主鎬
39년 農大卒·本會會長
宇成建設㈜會長
一金 1백만원
洋服地 5벌

許溶
47년 藥大卒
本會 理事
三一製藥㈜社長
기념타올 800枚

徐明源
46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文敎部長官
一金 20만원

尹鳳基
44년 工大卒
興國工業㈜社長
一金 20만원

南基棟
43년 工大卒
工大同窓會長
東洋시멘트㈜ 副會長
一金 30만원

尹德善
42년 醫大卒
本會 理事
漢江聖心病院 理事長
一金 20만원

金容喆
50년 法大卒
大法院長
一金 20만원

李禮植
49년 藥大卒
藥大同窓會 會長
延世製藥㈜社長
一金 20만원

金相廈
49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三養社 副會長
一金 30만원

金相烈
48년 藥大卒
本會 理事
건풍제약㈜會長
一金 20만원

河永基
48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第一生命保險㈜社長
캔 소세지 10박스

具平會
51년 文理大卒
本會 副會長
㈜럭키·湖南精油 副會長
一金 30만원

河英煥
51년 工大卒
本會 理事
韓國工業엔지니어링㈜ 顧問
一金 20만원

朴永夏
50년 醫大卒
本會 理事
乙支病院 理事長
一金 10만원

文太俊
50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大韓醫學協會 會長
一金 20만원

金鍾泌
50년 師大
前 國務總理
新民主共和黨 總裁
一金 30만원

崔鍾賢
53년 農大
㈜鮮京 會長
一金 30만원

李海元
53년 法大卒
本會 理事
保健社會部長官
一金 20만원

金性洙
52년 法大卒
法大 同窓會長
五洋水産㈜會長
一金 3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
本會 副會長
東亞製藥㈜會長
애플果汁飮料 1,200캔

申勳澈
51년 工大卒
三星航空㈜社長
一金 20만원

金泳三
51년 文理大卒
統一民主黨 總裁
一金 30만원

白樂晥
51년 醫大卒
本會 副會長
仁濟醫大 白病院 院長
一金 20만원

智東範
55년 工大卒
本會 理事
韓國製紙㈜社長
學生用노트 150권

金善弘
55년 工大卒
本會 副會長
起亞産業㈜ 社長
自轉車 2台

李錫珠
54년 商大卒
本會 理事
第一銀行 行長
一金 20만원

尹勤煥
54년 農大卒
本會 理事
農協中央會 會長
一金 20만원

崔昌洛
54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動力資源部長官
一金 20만원

金永銓
53년 藥大卒
前 藥大同窓會長
㈜斗邦 社長
一金 10만원

李弼善
53년 商大卒
本會 監事
제일시티리스㈜社長
一金 20만원

李憲祖
57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럭키·금성商社 社長
登山用 배낭 10點

姜晋求
57년 工大卒
本會 理事
三星半導體通信㈜社長
一金 20만원

裵基殷
57년 工大卒
本會 理事
東洋나일론㈜社長
一金 20만원

朴明圭
56년 商大卒
韓一銀行 行長
一金 20만원

柳哲鎬
56년 法大卒
本會 理事
漢城投資金融㈜ 社長
一金 20만원

金英錫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朝興銀行 行長
一金 30만원

南悳祐
56년 大學院卒
韓國貿易協會 會長
一金 2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
本會 副會長
㈜西光 會長
라꼬스떼 T셔츠 10點
샴푸 린스 50세트

趙南煜
57년 商大卒
本會 理事
三扶土建㈜社長
一金 20만원

李升雨
57년 商大卒
本會 理事
羅京商社 社長
一金 20만원

李祥根
57년 商大卒
韓美銀行 行長
一金 20만원

李圭孝
57년 法大卒
本會 理事
建設部長官
一金 20만원

崔侊洙
57년 法大卒
本會 理事
外務部長官
一金 20만원

鄭寅用
57년 法大卒
本會 理事
副總理겸經濟企劃院 長官
一金 20만원

同窓會의 活性化 이룩해 母校와 在學生 위한 기틀을 마련합시다

金周浩
59년 農大卒
本會 理事
農林水産部長官
一金 20만원

金讚煜
59년 工大卒
本會 理事
製鐵化學㈜ 社長
一金 20만원

金埰謙
58년 商大卒
本會 理事
㈜雙龍洋灰 社長
一金 20만원

崔洛賢
58년 法大卒
本會 理事
啓星製紙㈜社長
學生用 노트 480권

朴肯植
58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科學技術處長官
一金 10만원

李景勳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宇重工業㈜社長
電氣用 프라이팬 5個

孫海東
58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農 社長
一金 20만원

孫京植
61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安國火災保險㈜社長
一金 20만원

李啓謚
61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國際觀光公社 社長
一金 20만원

南正鉉
61년 工大卒
本會 理事
大宇엔지어링㈜社長
一金 20만원

尹世榮
60년 法大卒
本會 理事
㈜泰榮 社長
一金 20만원

丁海昌
60년 法大卒
本會 理事
法務部長官
一金 20만원

金新正
59년 商大卒
本會 理事
斗山食品㈜社長
코카콜라 1, 200캔

李埈鎔
60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大林産業㈜社長
大林오토바이 1台

申明秀
64년 商大卒
本會 理事
東邦油糧㈜社長
食用油 5박스

文孔訓
64년 商大卒
本會 理事
文鈴實業㈜社長
一金 20만원

李鍾律
64년 文理大卒
政務第 1 長官
一金 20만원

許文道
64년 農大卒
本會 理事
國土統一院長官
一金 20만원

韓亨洙
64년 工大卒
本會 理事
三星코닝㈜社長
一金 20만원

申熙澈
63년 商大卒
本會 理事
金剛製靴㈜社長
登山靴 5足

俞尚根
62년 行政大學院卒
行政大學院同窓會長
明知學園 理事長
一金 20만원

羅楨煥
66년 師大卒
本會 理事
亞南精密㈜社長
카메라 3台

崔東植
66년 文理大卒
本會 理事
圖書出版 正音社 社長
東國之樂 카세트 10點

吳明
66년 工大卒
遞信部長官
一金 20만원

徐敏錫
66년 工大卒
本會 理事
東一紡織㈜社長
一金 20만원

金恒德
65년 商大卒
本會 理事
㈜油公 社長
一金 20만원

朴容晟
65년 商大卒
本會 副會長
東洋麥酒㈜社長
OB캔 맥주 960캔

尹永錫
64년 商大卒
本會 理事
大宇造船㈜社長
一金 20만원

金春植
69년 商大卒
本會 理事
圖書出版 啓蒙社 社長
一金 20만원

徐勇雄
69년 師大卒
本會 理事
圖書出版 한샘 社長
一金 20만원

馬雄豪
68년 經營大學院卒
本會 理事
綠十字醫療工業㈜會長
登山用 버너 5個

李孝益
68년 經營大學院卒
經營大學院 同窓會長
三益樂器製造㈜社長
一金 20만원

鄭仁教
67년 商大卒
朝興銀行
桃花洞支店長
一金 10만원

曺相鎬
67년 行政大學院卒
本會 理事
體育部長官
一金 20만원

李燦河
67년 經營大學院卒
冠岳會 監事
大英會計法人 代表
一金 20만원

同窓會館 利用안내

會館 5층에 마련된 「冠岳會」를 各種 行事를 비롯한 結婚式場으로 貸與하고 있읍니다. 3백여 좌석을 갖춘 깨끗하고 아담한 분위기이오니 많이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702－2233～5

秋世煥
56년 商大卒 本會 理事
雙龍製紙㈜社長 ‖ 一金 20만원

李泓熙
55년 法大卒·本會 理事
東西食品㈜社長 ‖ 커피 10세트

金太文
73년 新聞大學院卒
新聞大學院同窓會長
㈜雙龍 常務
一金 20만원

金泓殖
71년 經營大學院卒
前 經營大學院同窓會長
㈜금복주 社長
금복주소주 1, 200병

李俊鶴
70년 經營大學院卒
本會 理事
泰亞産業㈜社長
一金 20만원

李雄熙
56년 工大
本會 理事
文公部長官
一金 20만원

單科大學 同窓會 探訪

工大 電氣工學科同窓会

工大 電氣工學科 同窓會는 우리나라의 電氣·電子분야의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동문들의 모임으로서, 회원수는 현재 2천5백여명에 이르는 메머드급 동창회이다.

同會의 구성원은 工大 전신인 京城高等工業學校, 京城工業專門學校, 京城帝國大學, 京城大學 그리고 서울대학교 工科大學 및 大學院(碩·博士과정) 전기공학과 졸업생을 정회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모교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수는 學部 70여명, 大學院 30여명으로 同會는 매년 1백명 안팎의 새회원을 받아들이고 있다.

동창회의 창립년도에 대해 同會 총무를 맡고 있는 韓松曄동문(모교 工大 교수)은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 잘 알수 없으나 1960년대쯤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창회가 활성화되어 그 활약상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은 1979년 崔元銀회장(中央大 교수) 때부터 였다.

이후 梁興錫(81~83년·모교 工大 교수), 朴炳鎬(83~85·〃), 元鍾洙(85~87년·〃) 회장을 거쳐 지난 4월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李達雨회장(한국코트렐㈜社長)으로 이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위해 年2회의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4월 연·모교 工大 교수), 朴炳鎬(83~85·〃), 元鍾洙(85~87년·〃) 회장을 거쳐 지난 4월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李達雨회장(한국코트렐㈜社長)으로 이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위해 年2회의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4월 9일 마지막주 원요일로 정례화된 이행사는 주로 오전에는 신형등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관악의 명문 잔디밭에서 놀이마당, 동산대회, 보물찾기, 노래자랑 등 즐거운 서울大人의 긍지를 서로 확인하고 있다.

李達雨회장은 『電氣工學科 동문으로서의 긍연2회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년마다 1번씩 會員名簿를 내어 회원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으로 同會는 후배를 위한 면학지원에도 힘써 지난 83년부터 奬學基金을 모금, 현재 약 5천여만원이 조성되어 있다. 이 基金의 과실금으로 현재 5명의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李達雨회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후배들이 혜택을 입을수 있도록 금명간 基金의 倍 4명의 電氣科 교수에게 回甲宴을 베풀어 줬다.

◇李達雨회장이 홈 커밍데이 행사에서 후배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같이 電氣工學科 동창회는 그 복잡한 前身에도 불구하고 동문들간의 和合과 團結이 잘되는 모임이다. 산업체의 현장에서 함께 뛰고 있는 韓松曄동문(모교 工大 교수)은 자세한 것은 기록이 없어 잘 알수 없으나 1960년대쯤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창회가 활성화되어 그 활약상이 체계적으로 기록된 것은 1979년 崔元銀회장(中央大 교수) 때부터 였다.

이후 梁興錫(81~83년·모교 工大 교수), 朴炳鎬(83~85·〃), 元鍾洙(85~87년·〃) 회장을 거쳐 지난 4월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李達雨회장(한국코트렐㈜社長)으로 이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룩했다.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위해 年2회의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4월 9일 마지막주 원요일로 정례화된 이행사는 주로 오전에는 신형등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오후에는 관악의 명문 잔디밭에서 놀이마당, 동산대회, 보물찾기, 노래자랑 등 즐거운 서울大人의 긍지를 서로 확인하고 있다.

李達雨회장은 『電氣工學科 동문으로서의 긍지와 자랑이 家庭으로부터 우러나올때 동창회의 기반도 든든하게 다져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家族的 참여, 특히 同門夫人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힌다.

同會는 이를위해 동창회의 모든 행사와 계획등을 담은 消息誌를 9월에 열리는 定期總會와 홈 커밍데이 행사가 바로 그것. 동창회 최대행사인 홈 커밍데이는 同門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참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종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基金 5천만원 확보, 奬學金 지급
會誌 명부간행으로 紐帶 강화

醫大 16회 同期會

醫科大學 16회 同期會는 卒業한 이듬해인 1963년 결성되었다. 豫科 및 本科의 6년을 통해 그만큼 親睦이 두터웠고 團合이 잘되었다고 할까.

『결코 요란한 것을 원치 않으며, 묵묵히주어진 自己의 職分과使命을 다하는 가운데, 친밀한 交分을 나누어 학창시절을 회상하고그에 담긴 아름다운 追憶을 길이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16회 同期會의 特徵이 되고있다.

卒業定員 1백20명가운데 作故한 5명을제외하고 國內에 55명, 國外(주로在美) 59명전원이 會員으로서 각기 專門分野에서 활약하고 있고, 在美회원의 比重을 감안, 在美同門會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동안 初代 金鍾信회장(김종신 외과의원장)을 비롯하여 2代 張敦植(서부병원장), 3代 韓正哲(덕산병원장), 4代 權寧助(권소아과의원장), 5代 金鳳泰동문(남서울병원장) 등이 會長으로 同會를 이끌어 왔고 현재 회장은 金明柱동문(한강정형외과병원장)이 수고하고 있다. 또 총무로서는 池堤根(모교 교수), 李純炯(모교 교수), 金永珉(모교 교수), 沈台燮동문(中央大 교수) 등이 맡았었고 현재는 李禎均동문(한양대 교수)이 맡고 있다. 요란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것이 同會의 특징이라는 것은 모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同會의 定期的인 모임은 年 두차례 갖는 定期總會가 전부이고, 그밖에는 會員의 慶弔事나 발전계획 청사진을 청취하고 전체 病院 施設 등을 돌아보며 기념촬영도 가졌다. 이 訪問에서 醫科大學 發展基金 8백만원과 圖書基金 2백만원 등 도합 1천만원을 醫科大學에 전달했다. 한편으로 在美회원 20명을포함한 회원 43명과 가족 96명등 1백39명의 大食口가 제주도로 기념여행을 다녀오기도했다.

◇졸업 25주년 기념으로 모교 병원을 방문, 기념촬영을 했다.

졸업25주년 기념해 母校방문
發展기금으로 1천만원 전달

在美회원의 귀국환영회가 고작이다. 다만 5년을 주기로한 졸업기념행사를 全家族이 參與하는 것으로하여 성대히 갖는 것이 이례적이다. 在美同門會는每2年마다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전체모임을 갖고있다.

卒業25주년 記念行事는 지난 8월에 가졌는데, Home Coming day를 가져 모교 현황과 2千年代를 향한 발전계획 청사진을 청취하고 전체 病院 施設 등을 돌아보며 기념촬영도 가졌다. 이 訪問에서 醫科大學 發展基金 8백만원과 圖書基金 2백만원 등 도합 1천만원을 醫科大學에 전달했다. 한편으로 在美회원 20명을포함한 회원 43명과 가족들 모임도 결성하여 韓正哲동문의 長女 한주연양을 회장으로, 柳世英동문의 長男 유재규군을 총무로 각각 선출, 앞날을 期待하게 했다.

현재 同會 회원은 學界에서 후진양성과 硏究活動에 몰담고 있는 者와 開業醫로서 社會活動을 하는 者로 大別되고 있다. 그중 몇몇 면모를 살펴보면 綜合病院長으로서 盧眞三(방지거병원), 張敦植(서부병원), 金鳳泰(남서울병원), 劉賢源(성베드로병원), 鄭宗煥(마산복음병원), 韓正哲(덕산병원), 李秉化(인천적십자병원), 金聖九동문(마산결핵병원) 등이 있으며, 張敦植동문과 韓正哲동문은 지역사회봉사활동으로도 더욱 이름이 나있다.

그리고 池堤根동문은 病理學중 뇌신경계통의 권위자이며, 李純炯동문은 기생충학의 권위자로서 최근 새로운 조충류를 발견, 學界의 注目을 끈바 있다.

또한 同會 회원중에는 文學을 愛好하는회원이 많은데, 代表的으로는 文人協會 수필분과위원장을 지낸 李秉化동문과 詩人 鄭容和동문을 들고 있다. 향후 同期會 文集을 낼 계획을 가질 정도로 文學活動이 활발한데, 다름아닌 한 때나마 자신의 삶과 內面의 世界를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時間을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

앞으로 同會는 현재 印刷중인 기념앨범을 완성되는대로 會員에게 배부하고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美國에서 갖기로해 그에 대한 준비에 拍車를 가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졸업년륜에 걸맞게 후배및 모교에 대한 支援도 더욱 强化해나가겠다고. 그런 가운데 『知天命의 나이, 아리까리연령, 더머리가 희기전에 자주 만나자』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李熙昇(30년 文理大卒·母校名譽敎授·仁村紀念會理事長)=10월 12일 오후 6시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제1회 仁村賞 시상식을 갖고 축하연을 개최。

▲郭義榮(36년 法大卒·本會理事·林光土建㈜회장)=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喜壽기념 自敍傳출판기념회를 개최。

▲閔寬植(40년 農大卒·本會理事·亞細亞政策硏究院長)=10월 8일 在日동포 실태조사 및 大村수용소를 둘러보기 위해 出國。

▲沈鍾燮(41년 農大卒·農科大學同窓會長·學術院會長)=10월 15일 강남구 반포동 서초공원안에 신축한 화·예술원의 개관식을 가졌다。

▲趙炳華(43년 師大卒·本會理事·詩人)=최근 에세이집 「내 일로 가는길에」를 영언문화사에서 出刊。

▲金道昶(47년 法大卒·本會副會長·辯護士)=10월 24일 日本 東京大學法學部長초청으로 일본 공법학회 세미나에 참석한뒤 일본의 유수한 몇개 대학에서 초청강연을 한뒤 歸國。金동문은 大學院同窓會長 職도 맡고 있다。

▲孫寶基(47년 文大卒·前理事·延世大교수)=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한글날기념식전에서 제6회 세종문화상 학술부문수상자로 선정돼 受賞。

▲閔庚天(50년 文理大卒·서울市敎育會長)=10월 17일 오후 2시 서울신문로에 마련된 교육회관 개관식 및 「敎育會40年史」 刊行 自祝會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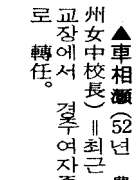
▲閔東根(50년 文理大卒·忠南大文科大교수)=10월 23일 오후 1시 大田觀光호텔 9층에서 열린 回甲기념연에 참석, 後學들로부터 회갑기념논총을 증정받았다。

▲申勳澈(51년 工大卒·三星航空㈜社長)=10월 14일부터 10일간 미국 항공업체관계자들과 헬기사업등에 대한 항공업무를 협의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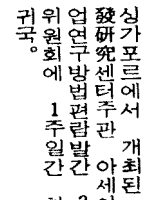
▲金致善(51년 法大卒·崇實大總長)=10월 12일 숭실대 개교90주년을 맞아 명예박사학위수여등 각종 행사와 「숭실대학교 90년사」를 刊行。

▲金寅洙(51년 法大卒·本會理事·京畿特殊産業㈜副會長·辯護士)=최근 에세이집 「고독보다 깊은 사랑」을 영언문화사에서 出刊。

▲邊衡尹(51년 商大卒·母校社會大교수)=최근 제6회 茶山經濟學賞 올해 受賞者로 선정되었다。다산경제학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국경제학의 정립을 위해 제정。



▲文基烈(54년 文理大卒·慶州女中校長)=최근 新羅中學교장에서 경주여자중학교장으로 轉任。



▲盧信永(54년 法大卒·本會理事·前國務總理)=10월 6일 약 1개월동안 미국·캐나다·영국·홍콩등 여러나라 방문을 마치고 귀국。

▲李鍈珠(54년 商大卒·本會理事·第一銀行長)=10월 5일 새로 마련된 준공식과 제일은행본점건물의 준공식을 가졌다。

▲李龍勳(55년 工大卒·駐칠레大使)=10월 2일 서울 종로1가에 있는 한일은행본점건물의 준공식과 축하리셉션을 가졌다。

▲李雀熙(55년 工大卒·駐칠레大使)=10월 2일 外交部로 귀국, 駐칠레 安保硏究院연구위원에서 칠레大使에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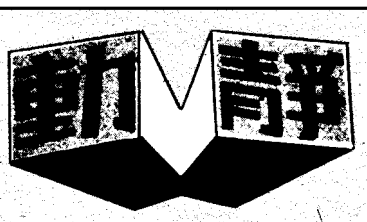
▲金相仁(55년 醫大卒·母校醫大교수)=10월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한글날기념식전에서 제6회 세종문화상 과학기술부문상 수상자로 선정돼 受賞。

▲申旻澈(56년 齒大卒·本會理事·大韓齒科醫師協會長)=10월 17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75차 세계치과연맹 총회및 학술대회와 미국치과의사협회를 방문키 위해 出國。

▲吳在熙(57년 文理大卒·駐英國大使)=지난 30일자로 駐英國大使에 임명되었다。吳동문은 외무부차관을 역임했었다。

▲尹鍾爀(57년 文理大卒·弘益大文科大學長)=9월 19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개최된 펜클럽세미나에서 「각급펜클럽이 문학의 세계교류에 미치는영향」이란 주제를 발표。

▲柳鍾玄(57년 文理大卒·駐세네갈大使)=10월 2일자로 駐세네갈大使에 任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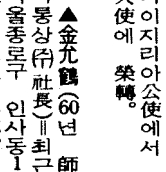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趙成鈺(56년 文理大卒·유네스코韓委事務總長)=10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제24차 유네스코총회에 참석키 위해 出國。

▲朴東奎(57년 文理大卒·西베를린總領事)=10월 16일자로 駐西베를린 총영사에 임명되었다。

▲金太智(57년 法大卒·駐印度大使)=10월 獨公使에서 西베를린 총영사에 임명되었다。



▲金尤鶴(60년 師大卒·범미통상㈜社長)=최근 社屋을 서울종로구 인사동156 성보빌딩으로 移轉。전화 733-0830 나이지리아公使에서 駐니제르大使에 榮轉。

▲安承喆(60년 商大卒·本會理事·信用保證基金理事長)=10월 18일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중소기업자대회에 참석, 「중소기업 지원과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기조연설을 했다。

▲姜碩熙(60년 音大卒·母校音大교수)=10월 5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의해 88올림픽 폐막식음악 총괄행사를 위촉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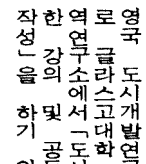
▲李正五(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科學技術院長)=10월 11일 독일 및 터키정부 초청으로 상호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出國。

▲金宗植(61년 文理大卒·母校自然大교수)=10월 8일 大韓數學會에서 주관한 한수학회 학술부문상을 受賞。

▲李勝雨(61年 齒大卒·母校齒大교수)=10월 11일 스위스 아시아 頭蓋下顎障碍學會 카운슬 미팅에서 次期會長에 被選。

▲許陞(62년 文理大卒·駐휴스턴總領事)=10월 2일자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에서 휴스턴총영사에 임명되었다。

▲金正吉(62년 音大卒·母校音大교수)=10월 5일 서울올림픽위원회 위촉



▲韓國鍾(67년 商大卒·韓國電力麗水支店長)=최근 한국전력공사 본점에서 同公社 여수지점장으로 부임。

▲李丙台(67년 齒大卒·이병태치과의원장)=10월 16일 63빌딩에서 있은 大韓齒科醫師會 제38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의료문화상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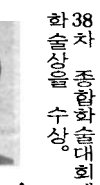
▲金璟麟(70년 行政大學院卒·詩人·韓國新詩學會長)=최근 詩選集 「서울은 야생마처럼」을 문학사상사에서 出刊。

▲趙成憲(74년 行政大學院卒·京畿道地方公務員敎育院長)=9월 22일 수필집 「사색의 오솔길」 4판 출편기념회를 동교육원 휴게실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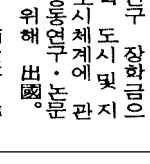
▲梁銀姬(75년 音大卒·소프라노·祥明女大교수)=10월 13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소극장에서 독창회를 개최。

▲陳仁柱(76년 工大卒·仁荷大교수)=최근 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서 재료공학박사학위를 취득, 귀국하여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조교수로 재직중。

▲鄭弼薰(79년 齒大卒·忠南大敎授)=10월 16일 大韓齒科醫師會 창립 66주년 기념 제38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신안학술상을 수상。



▲裵舜錫



▲李大雨(77년 環境大學院卒·前서울市公園綠地擔當전임연구위원)=최근 확정발표된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에서 造景技術士에 合格。

영국 도시개발연구 장학금으로 글라스고대학 도시및지역연구소에서 「도시체계에 관한 강의 및 공동연구·논문작성」을 하기 위해 出國。

同門을 찾아서

韓國電算院長 金聖鎭박사

電算化수준 세계5위권 推進
獎學基金위한 募金운동 強調

우리나라의 情報産業은 1980년대에 들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이러한 발전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었다。한예를들면 그동안 도입된 器機및 시스템의 標準化가 되어있지 않아서器機 상호간의 집속과통신망 사이의 연결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韓國電算院은 바로이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기술지원、국가및 공공단체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 설립되었고、초대원장에 체신부장관、과기처장관을 역임한 金聖鎭동문(59년文理大卒・본회이사)이 임명되었다。

『한국전산원은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전산망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이용기술의 개발 보급、전산망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감리、전산화에 따르는 각종 제도의 조사와 개선、전산망과 관련된정책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金동문은 한국전산원의 임무에 대해 이같이 밝힌후 門外漢인기자를 위해『정보산업부문에 있어서 산업계와 정부기관의 교량역할과 완충역할을 수행하고、관련단체들과의 각종활동을 통하여 앞으로정보화사회를 주도해갈핵심기구』라고 덧붙여설명해 준다。

陸士11期를 수석입학、수석졸업한 金동문은中尉때 모교 文理大에편입학、59년에 졸업했다。陸士졸업때의 꿈은 육군참모총장이 되는것。그래서 그는 장차 지휘관으로서의 國家觀을 재정립하기 위해 모교에서는 史學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 꿈은 얼마후에 일어난 4・19를 계기로 바뀌어졌다。

金동문은 59년부터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송요찬장군의 전속부관으로 근무했는데 4・19를 맞아 계엄사령관으로서 송요찬씨가 취했던 절묘한 수습대책에 감복、『내자질로는 군지휘관이 못되겠다』는생각이 들었다는 것。그때의 충격으로 한때군을 떠날 결심까지 했었었다는 金동문은、62년 美일리노이大에 유학、물리학석사、66~70년 美플로리다大에서 기계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뒤 陸士교수부로 돌아왔다。金동문의 그때꿈은「교수부장」이었다。그꿈도 76년 國防科學연구소 창설멤버로 가면서 깨지었다。이후 金동문은 국방관리연구소장、국가보안기획부차장、국방과학연구소장、체신부장관、과기처장관、한국과학재단이사장등을두루 거치며 국내과학기술분야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체신부장관 재직시에는 전기통신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데 一助를 담당했다。

그의 이같은 캐리어가 한국전산원 설립과 함께 원장 적임으로지목된듯。

『한국전산원의 목표는 2천년대까지 전산화의 수준을 세계 5위권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이를위해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연구위원실에서 세우고 있읍니다。금년末 내놓을 목표로 몰두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초엔 中・長期計劃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군출신(준장예편)이면서도 오히려 학자로서의 체취가 물씬풍기는 金동문의 達辯은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다。

그는 특히 2천년대의 세계 5위권 진입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있는듯 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학계、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金동문은 동창회에 대해『모교 교수들에게는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그리고 후배들、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공부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를위해 전동문을 대상으로한 基金募金運動을 전개할것을 촉구했다。

朴敬錫(국회의원)、申允植(체신부기획관리실장) 동문등이 文理大재학시의 동기로 이들과는 현재도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한다。

가족으로 부인 金仁惠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있다。

…大卒・本會理事・東國製藥㈱會長)‖최근 慶北大醫大病院藥局長職을사임、東國製藥㈱ 회장에 취임。

▲金英海(48년 齒大卒・母校 齒大교수)‖10월 16일 63빌딩에서 있은 大韓齒科醫師協會 제38차 종합학술대회에서 학술대상을 수상。

▲李應百(49년 師大卒・母校 師大교수・本報編輯委員)‖韓國隨筆文學振興會회장으로서 隨筆文友會(회장 金泰吉동문・47년 文理大卒)와 공동주최로 10월 31일~11월 1일 양일간 楊平 남한강종합수련장에서 제4회 隨筆文學세미나를 개최。

…理大卒・駐자메이카大使)‖10월 2일자로 外交安保研究院연구위원에서 駐자메이카大使에 임명되었다。

▲鄭鎭溟(54년 文理大卒・全南大교수)‖10월 8일 大韓數學會에서 주관한 87년도 대한수학회 공로부문상을 受賞。

▲李昌洙(54년 文理大卒・駐濠洲大使)‖10월 16일자로 外交安保研究院연구위원에서 駐濠洲大使에 임명되었다。

▲申東完(54년 農大卒・本會理事・忠南大교수)‖10월 28일

…위해 出國。

▲金以銘(56년 法大卒・駐홍콩總領事)‖10월 2일자로 駐스리랑카大使에서 駐홍콩總領事에 임명되었다。

▲金在潤(56년 商大卒・韓國銀行副總裁)‖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7차 Senza 16개회원국의 中央銀行총재단 회의에 참석코 귀국。

▲朴明圭(56년 商大卒・韓一銀行行長)‖9월 13일 한일은행 뉴욕지점 개점10주년 기념식 및 리셉션에 참석하고 귀국。

…지난 30일자로 外務부기획관리실장에서 駐印度大使에 임명되었다。

▲申東元(57년 法大卒・外交安保研究院長)‖지난 30일자로 駐印度大使에서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되었다。

▲宋桂先(57년 商大卒・本會理事・韓國外換銀行信用事業部長)‖9월 9일자로 외환은행 태평로지점장에서 본점 신용사업부장으로 榮轉。

▲金日健(59년 文理大卒・駐니제르大使)‖10월 16일자로 駐

…개막식음악의 총괄행사를 위촉받았다。

▲金俊浩(64년 工大卒・범아건축소장)‖최근 강남구서초동1308에 있는 종합건축사무소 범아건축소장에 취임。

▲金旻(64년 音大卒・바이얼니스트・母校音大교수)‖10월 1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음악가협회 제정의 「올해의 音樂家賞」을 受賞。

▲崔相鎭(65년 文理大卒・駐핀란드大使)‖10월 2일자로 外交安保研究院연구위원에서 주핀란드大使에 임명되었다。

▲權源庸(68년 工大卒・國土開發研究院 研究委員)‖9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8…년 工大卒・國土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지난 6월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도시계획박사학위를 취득코 최근 同院에 부임。

▲孫在英(80년 商大卒・國土開發研究院 主任研究員)‖지난 8월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코 최근 同院에 부임。

▲玄純伊(81년 音大卒・바이얼니스트)‖10월 24일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귀국독주회를 개최。玄동문은 미국 코네티컷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 과정을 이수중。

掲示板

結婚

△禹寅燮(51년 師大卒・本會理事・國際大學교수)‖지난 10월 24일 오후 3시 醫療保險會館강당에서 次男 宜基君 結婚。

△金東郁(81년 農大卒・全州製紙㈱企劃管理室)‖11월 7일 오후3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홀)에서 結婚。

△孫根元(84년 師大卒・京東高校敎師)・白京淑(大學院英語科在學)‖11월 8일 正午 서울大學校同窓會(5층홀)에서 結婚。

△金炯培(81년 農大卒・해태제과)‖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홀)에서 結婚。

△金義煥(85년 法大卒)‖11월 18일 오후 1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홀)에서 結婚。

△韓應洙(82년 農大卒)‖11월 22일 오후 1시 서울大學校同窓會館(5층홀)에서 結婚。

訃音

▲兼道義(65년 農大卒・母校農大교수)‖10월 15일 농대학생80여명과 함께 경기도 안성군에서 벼베기일손돕기에 나갔다가 歸校하던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가료중오후 3시에 別世。

農村奉仕활동

名譽敎授 칼럼

金 文 植 〈前農大교수〉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産業化시대에 접어들면 도시는 번창하고 농촌은 기울기 마련이다. 우리도 그 예외일 수는 없다. 向都離村하는 人口는 날로 늘어나고 농촌에는 靑長年층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營農이 점점 粗放化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누가 무어라해도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도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어촌이나 산촌이면 그러한 소외는 한층 더하다.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名目하에 서울대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여개星霜이 흘렀다.

필자는 1960년대 중반부터 10여년동안 봉사활동의 지도교수를 맡아 미력을 쏟은 적이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이 되면 20명안팎으로 편성되는 남녀학생활동대를 따라 벽촌을 찾아 나섰다.

학생들은 각 분담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부족한 농사일손을 돕는 班, 부락아동들의 학업지도를 담당하는 班, 부락내 길을 보수하는 班, 부녀자들의 부업(뜨개질, 봉재 등)을 지도하는 반 등으로 나누어 약 10일간 봉사활동을 한다.

활동을 마치고 부락을 떠나는 날이 되면 부락민이 모두 나와 그간에 맺어진 情에 이별을 아쉬워 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대학생 언니들의 옷자락에 매달려 울며 작별을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지도교수인 이사람도 눈시울을 적시며 흐뭇한 느낌에 젖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봉사활동중 학생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비좁은 잠자리, 어설픈 식사, 과로에서 오는 피로, 부족한 잠, 여름이면 잠을 설치게 하는 억센 모기와 겨울이면 산촌의 들녘을 몰아치는 매서운 바람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젊은이들의 강력한 情熱과 끈질긴 忍苦없이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었다.

어느 해인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충남 서산의 해변에 위치한 半農半漁의 어느 촌락을 찾았을 때의 일이다. 이 부락에서는 齒大의 의료봉사반과 합류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齒大의 지도교수에는 金某교수가 수행하고 있었다.

치대반이 활동을 마치고 떠나려는 날 아침에 김교수에게 부락에 急患者가 생겼으니 진찰을 해달라는 전갈이 왔다. (필자는 그 급환자가 위경련으로 진작하였다) 齒科의사인 김교수는 자기 專門이 아니라서 진찰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읍내의 병원을 찾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버스길도 없고 병원과는 수십리길이 되는 벽촌에 사는 환자의 아버지인 村老는 김교수에게 매달렸고 일반환자를 돌볼 수 없는 김교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머지 마침내 怒氣띤 어조로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안보아주겠다는 거냐?」하며 많은 부락민이 모인 자리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김교수에게 면박을 주었다.

생각하면 「당신이 무슨 박사냐」하고 들이대던 그 현장의 상황이 우습기만 하였으나 한편 생각하면 벽촌에 사는 농어민들의 교통의 불편, 의료시설의 혜택과는 인연이 먼 그들의 처지가 안타까웠고 그러한 낙후지역이기에 우리가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말로서 김교수를 위로했었다.

農路개척등 숱한 고생으로 學生들 농촌을 理解
民願사항 해결된 마을에선 지금도 소식 傳해줘

齒大봉사대가 부락을 떠난후 필자가 지도를 맡았던 학생대표는 군청에 들려 읍내에서 부락까지의 버스운행을 건의하였고 충남도청에 들려 김(海苔)의 양식장 개설을 허가해줄 것을,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들려 자금을 지원해줄것 등을 건의하였다.

1년이 지난후 그 부락의 里長이 필자의 연구실에 찾아와 버스가 하루 2회 운행되게 되었다는 사실과 비롯하여 김 양식장이 개설된 사실을 알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할 겸 들렀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서산에서만 겪은 것이 아니다. 해를 바꿔가며 강원도의 횡성에서, 경북도의 영천에서, 전북도의 임실에서, 충북도의 냉춘에서 또는 충청남도의 예산에서도 겪은 일들이다.

봉사한 활동의 내용과 벌어진 사건의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거기에 내재해 있는 문제성은 거의 비슷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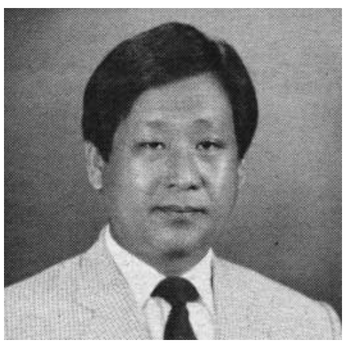
봉사활동이 끝나고 대학으로 돌아온 후 현지로부터 감사의 서장을 받을 때에 느끼는 흐뭇한 만족감은 이를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그 흐뭇함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10여년간 힘든지도 모르고 20리 때로는 30리 길을 걸어 벽지 농어촌을 찾게 했는지도 모른다.

물론 20여명의 학생이 잠간 농촌에 들려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겠는가마는 그 동안에 대학생들은 농촌을 배우고 농민을 알며 농업이 얼마나 힘든 生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농민들로서는 일손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락민들의 힘만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대학생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대학생의 방학중 봉사활동은 이를 소망스러운 활동으로 평가하고 싶다.

필자는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 농촌봉사활동과 인연을 끊은지 이미 오래지만 돌이켜보건대 낙후농촌을 돕겠다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그 열의, 그리고 이를 고맙게 받아들이던 농어민들 또한 조그마한 업적이나마 남길 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 언제나 마음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同門 수필

太平洋時代를 꽃피우자



林 漢 洙
〈60년 師大卒·
誠信女大學生處長〉

지난 여름까지 온누리에 가득했던 민주화의 열기와 통일된 선진복지국가건설을 열망하는 온겨레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사상초유의 합의 개헌과 자유민주선거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내년 가을에는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제24회 올림픽게임이 개최됨으로써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세계사의 주류에서 소외되어 왔던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부상함과 동시에 백인우위의 세계질서를 전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질서 아니 동양의 유교문화권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로 개편하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사의 『井中之蛙』였던 우라 한민족이 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세계사의 주류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세계역사 발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괴침략집단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는등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위에 자유우방선진제국의 신보호주의 경향과 한국시장개방압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변혁을 바라는 젊은세대와 기층민중의 욕구불만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으로 변질되고 국론이 四分五裂되어 반만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민족에너지를 낭비, 소진시켜 국가발전에 역기능을 함으로써 국운을 쇠퇴케 하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바이다.

60년대초 1인당 국민소득 78불대의 절대빈곤상태에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체념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지 4반세기만에 2300불대의 산업사회를 건설하고 88년에는 3,200불을 초과하는 경제적 기적을 이루게 될것으로 기대되며 현재의 발전속도를 지속시킨다면 90년대 중반에는 8,000불 달성은 무난할것이며 금세기가 끝나기전에 선진대열에 동참할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다.

서구선진제국이 200여년 걸려 성취시킨 산업혁명을 우리는 불과 한세대(30년)만에 성취시키는 저력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있고 사회적 병리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시대에 해결해야할 당면과제들이다.

이상과 같이 중차대한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안정속에 변화를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에 부흥키 위해서는 다양한 이익집단과 사회계층의 욕구를 수렴하여 민족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시켜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이룩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 상승기류를 타고 있는 국가발전의 리듬을 깨지않고 조용한 다수의 우국충정을 헤아려 대변하고 멸사봉공할줄 아는 지도자가 요망되는 때이다.

10만평방킬로미터 미만의 좁은 땅에 4,220만명이상의 과밀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는 15세기말 유럽에 조성되었던것과 같은 팽창기운이 조성되어 있고 세계도처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청교도들에게 북미대륙이 예비되었던 것처럼 분쟁의 조정자이며 화해자로서, 협력자요 건설의 역군으로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전세계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조국의 팽창기운과 넘치는 민족에너지를 국내문제때문에 낭비, 소진시키지 않고 한국의 과밀문제를 해외개발과 연계시켜 해결할 능력과 경륜을 가진 지도자, 대국을 볼줄 아는 지도자, 현대판 르네상스를 한반도에서 꽃피울 수 있는 Vision과 Blue Print를 가진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대망되는 계절이다.

新刊 안내

※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읍니다. 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 韓國近代社會思想史硏究

—愼鏞廈 著

文理大출신의 母校社會大교수로 근래에 들어 近代史연구에 多産的저술가로 알려진 著者가 實證的토대위에서 쓰여진 人物로본 開化期이후의 知性史로 평가되는 著書이다.

吳慶錫의 개화사상, 東學의 사회사상, 金玉均의 개화사상, 독립협회의 社會主義, 韓末의 愛國계몽사상, 周時經의 애국계몽사상, 申采浩의 민족주의사관등 그동안 연구 발표한 논문을 모아 엮어낸 것이다.

著者는 市民的近代民族主義는 초기의 개화사상이 애국계몽운동으로, 農民的흐름은 東學에서 甲午농민 전쟁으로, 전근대적 흐름은 위정척사사상에서 병인·신미양요에 이어 抗日의병무장투쟁의 세갈래의 민족주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 著書에서 著者는 일반적인 近代史가 아니라 知性史로서의 社會思想史의 구성에 注力, 주시경의 한글연구를 愛國계몽주의적인 民族觀에서 파악하고 있는 觀覺의 진지한 시도가 높이 평가될만하다.

□ 韓國과 西洋

—프랑스文化의 傳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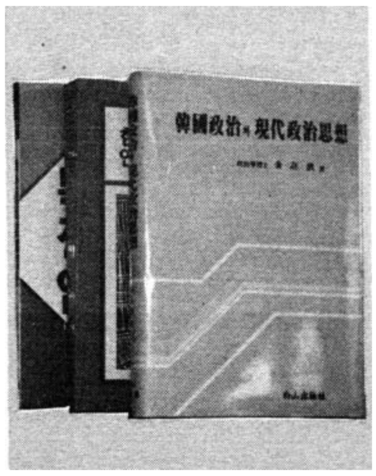
—丁奇洙 著

51년 文理大출신, 公州師大에서 佛文學을 강의하고 있는 著者가 한국과 서양문명의 접촉의 역사에서 프랑스문화이 한국문화에 끼친 영향을 밝힌 프랑스語版著書이다.

이책은 著者의 학위논문으로 85년 보르도대학에서 발표되었던것을 서양과 서양문명, 그리고 프랑스문화에대한 한국인의 반응을역사적으로 追跡함으로써 한국인의 참모습을 찾아보려는 노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크게평가할만하다.

모두 2부로 구성된 이책은 제1부 한국인의 서구문화와의 초기접촉, 제2부 한국에서의 프랑스문화의 전파로 되어있으며, 부록으로 해방에서부터 70년까지에 출간된 프랑스문학에 관한 기사, 저서 및 작품의 번역, 세계문학전집에 들어있는 프랑스문학작품의번역서 그리고 해방전에 출간된 동번역들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자료가 실려있다.

한국인의 學術書로서는 처음으로 빠리에서 출간되었다는 의미도크겠으나 韓佛比較文學, 비교문화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著書라 할 수 있으며, 외국문화의 受容面에 있어서 과거의 우리 外國語교육과 번역의 실상을 검토 비판하는 면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평가될만하다.



□ 韓國政治와 現代政治思想

—金在洪 著

著者가 母校대학원博士課程을 이수하면서제출했던 연구보고서들을 재정리하여 펴낸 著書이다. 著者는 69년文理大政治學科에 入學한 후, 軍服務와 東亞日報記者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母校에서 碩·博士과정을이수, 지난 2월에는 博士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한국의 左右翼理念과 해방후 政黨活動에 관한 연구」.

母校「大學新聞」의 편집국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講義하고 있는金동문은, 요즘 젊은 지식인들이 행위규범과 념정립의 문제, 그리고 시대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의 문제들로 고민하는 모습을 접해오면서 그것이 이책의 書述에 자극제가 됐다고 序文에서 밝히고있다.

內容은 독립운동 전후 左右翼理念의 전개, 分斷시대의 한국정치와 이념, 한국의 정치참여 폭발과 현대정치사상등 韓國政治論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이념의 영향이 결정적인 비중을 갖고 있다고전제하고 그 정치이념의 뿌리를 구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한국사회주의운동에 조직·이론·활동자금까지제공한 코민테른에 대한 1차자료분석은 보기드문 연구업적이라 지적된다.〈白山出版社刊 값6천8백원〉

□ 音樂과 知識

—李康淑 編著

61년 音大출신으로母校音大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著者가 음악이론을 전공한 제자들과 함께 25편의 음악논문들을 번역해 펴낸 編著書.

이책은 음악을 향한 감정적 접근에서 지식적 접근에의 또다른길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李동문을 포함한 25명의 음악이론전문가들이 각기 한편의 논문들을 학문하는 자세로 책임있게 번역함으로써 이 책을 대하는 이들에게 이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있겠다. 뿐만 아니라 음악이론연구의 방향제시와 우리나라의 음악이론에 대한 연구가 어느정도 깊이있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할수 있어 음악이론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음악의 감정접근에서 지식축적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특히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선 지식적인 접근과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책이기도 하다.〈民音社刊〉

□ 韓國獨語獨文學 硏究文獻書誌

—李忠燮 編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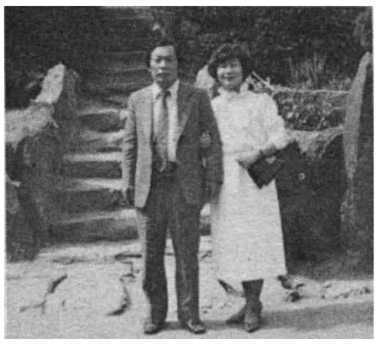
77년 人文大독문과출신으로 母校에서 碩·博士과정을 수료하고慶北大에서 독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著者가인구 증가에 따라 硏究文獻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書誌의 중요성을 절감, 1945년 이후의 독어독문학분야의 연구문헌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書誌는 정확성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저의 2년간을 전국의 도서관을 비롯, 서점·출판사를 섭렵,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머리말에서 지적하고있다.

내용을 보면 해방때부터 86년까지 한국에서 출간된 논문집, 학보, 연구보고서, 일반·잡지에 실린 논문, 석·박사학위논문, 저서, 역서를 독문학, 독어학으로 구분하고 다시 主題別, 작가및 작품별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부록으로 외국의 학술지게재논문의 목록을 추가시켜 전문인들의 연구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家庭閑談

世代差異



李和子女史

朴海俊(66년 文理大卒·作家) 夫人

大學을 졸업하던 해에 취직을 하려다말고 결혼 다섯의 노총각과 결혼을 하고보니 이건 꼭 嚴父侍下와도 같은 嚴夫侍下에서 사는 꼴이었다. 媤父母가 안계시고 형제라곤 없다보니 시집살이랄것도 없었지만 나이도 십여년 年上인데다 山戰水戰다 겪은 남편에겐 세상경험이 부족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웠다. 世代感이 느껴질 지경이었으니 그러한 世代感은마치 요즘 아이들을대할 때의 세대감의 차이와도 흡사하다고나 할까?

어느날인가 가족회의를 할 때였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 앞에서 눈치만 살피고있던 高1짜리 딸애가 먼저말문을 열었다.

『엄만 제가 조금만 늦게 오면 학교에다전활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단』고 했고 中2인 막내도 뒤질세라 한마디거들었다.

『엄마는 친구집에서 좀 놀다가 늦게오면부드럽게 왜 이리 늦게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왜그집에서 아예 자고 오지 그랬어 하고 말씀하시니까 더 기분이상한다』고 했다. 그리고 高3인 맏이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앉아있다가 두 애들말에 점잖게토를 달았다.

『그게 다 世代차이 때문이야.』

나는 잠시 어이가없어 말문이 막혔다. 결혼초기에 남편에게 느꼈던 世代感을 이십개星霜도 지나지 못해서 아이들로부터 당하고보니 나도 이제 흐르는 세월에 감각이 무디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혼때 패물이랍시고 신통치도 않은 반지하나를 받았는데 그것도 사흘간의 신혼여행이끝나기가 무섭게, 금은방을 하는 친지에게서빌려온 것이니 돌려주자고 했을 때의 당혹감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째지게 가난한 것을 알고 결혼을 했으니 노심초사 끝에 쩔쩔매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후 열심히 노력하여 채 십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P·E·N회의에 다녀오면서, 그때 못해 줘서 恨이 되었노라며 내놓은 반지며 목걸이며를 보고 감회에 젖었던 일을 회상해 보며, 세대차이를 느끼는 아이들에게도 그때와 같은 감회에 젖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해 본다.

補藥과 健康法

健康교실⑧

養生法에선 藥補가 心補만 못하다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1、건강의 要因 分析

어떤 사람은 담배나 술이니 하는 기호물을 서슴치 않고 보통사람보다도 많이 즐기는데도 8、9십세까지 거뜬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몸에 해롭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사는데도 건강이 신통치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사실을 보고 술이니 담배니 하는 것이 전연 건강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두가지 모두 지나치면 몸에 해로운 것도 사실이다.

사람의 건강을 좌우하는 조건이 알게 모르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 조건만 가지고 건강에 좋으니 나쁘니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수학의 함수관계로 말하면 「多變量系」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要因分析」을 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니까 건강법을 논한다는 것은 이른바 「群盲撫象」격이 되어 이 사람은 이것이 좋다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좋다하는 식으로 각자의 느낌을 나름대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각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가장 알맞는 생활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터득하여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고 할수 있겠다. 남이 좋단다고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을 무턱대고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요새는 「情報洪水時代」라는 말마따나 웬 건강법이니 건강식품이니 하는 것의 정보가 그리도 많은지 경황을 차리기 힘들다. 이런 때일수록 「임금님 약 없어 죽었나」하는 속담의 뜻을 되새기면서 자기 나름대로 오붓한 생활의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다.

또 한가지는 건강법을 육체와 정신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영양섭취、보약、체육등은 육체를 위한 건강법이라 할수 있고、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느냐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새 크게 발전되어 가는 「心身醫學」에 의하면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의 약 70퍼센트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무리 몸에 이로운 일을 하드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술이나 담배를 하드라도、이렇다 할 운동을 하는 것도 없고、아무거나 평범한 식사를 하드라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와 반대로 아무리 육체적인 건강법을 잘 지켜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건강할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마치 내일 소풍을 떠나는 어린이들처럼 신바람이 나는 것이다. 마음이 침체되면 육체도 침체된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저자인 許浚은 「心者身之主也」(마음이 내 몸의 주인이니라)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요새의 건강법은 마음은 제쳐놓고 육체적인 건강법만을 따지고 있는데、효과를 낸다고 하여도 30퍼센트 밖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옛 養生法에도 「藥補는 食補만 못하고、食補는 心補만 못하느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요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는 「安心立命」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천지만물 모든 생명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살게 마련인데、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살지 못할까 보아서 안절부절인가. 건강을 조심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조심한다는 것과 건강노이로제와는 전연 다르다.

현대인은 알게 모르게 정도의 차는 있을망정 모두 건강에 대해서 신경과민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가을철 보약

구체적인 건강법을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풍습에 가을철이 되면 보약을 먹는 습관이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체력을 보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다. 소위 보약이라는 것이 하도 많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도 근거가 있는 보약으로 우선 구기자(枸杞子)를 들수 있다. 구기자는 우리나라의 진도、완도、청양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며 쉽사리 구할 수 있다.

동양의 가장 오래된 약학서적인 「神農本草經」이라는 책에 인삼과 더불어 구기자가 「上藥」에 올라 있다. 上藥이란 養命하는 약이며 전연 부작용이 없어 「多服、久服、無傷人」하는 약이라고 되어있다. 과학적으로도 동맥경화증과 脂肝症을 예방또는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고 되어있다. 또 옛 표현을 보면 「집을 떠나서 타향에 가 있는 동안은 구기자를 먹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나온다. 정력이 세어지면 집에 돌아갈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하루에 구기자 말린 것을 5~10g 달여서 차처럼 마시면 된다. 설탕이나 꿀을 두어 달게 하면 어린이들도 좋아 마신다.

산이 좋아 山에 오른다

金 于 玄
〈57년 師大卒・파나旅行社会長〉

지휘자의 誤判은 全隊員을 고생길로 몰아
山行엔 登山장비 철저히 점검한뒤 出發을

산이 좋아 산엘 오르고、산이 좋아 남들에게도 오르기를 권하고、그러다보니 회사에도 산악부가 생겨、해마다 두어번씩 연휴를 이용하여 명산 순례를 하고 있다. 그 사이 15년도 더 되는 세월이 흘렀으니 줄잡아서 서른번이 넘게 명산을 순례한 셈이 된다.

우리 산악부에는 산을 좋아하고 산을 알고 산을 공경하는 대원들이 많다. 그러나 전원이 다 그렇지는 못하다. 社友라면 누구라도 대원이 될수 있으니 그중에는 산엘 처음으로 오르게 된 대원도 간혹 있다.

서른 번이 넘는 산행중에는 고통스럽던 일、모골이 오싹해지는 일、등등 수많은 뒷이야기가 남아 있다.

(1) 맨발등산

月出山 등반 때의 일이다. 월출산은 전라남도 바다 가까이에 솟아 있는、소백산맥의 마지막 봉우리다. 산이 온통 기암으로 치솟아 있어、가위 남도의 皆骨山이라 일컬을 만하다.

이런 산을 맨발로 오른다면 어찌 될까? 정상이 지척에 보이는 곳까지와서 모두가 휴식을 하고 있는데、맨 뒤에 처진 두 사람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들이었다. 기다리다 못해서 젊은 대원을 내려 보내려 할 지음에서 저 아래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대원은 발을 절고 있고 한 대원이 부축하고 있다. 가까이 온 것을 보니 신발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맨발 등반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갈길은 아직도 3분의 2이상이 남아 있는데 따로는 묘수가 없었다. 10년도 더 되게 신어서 빤질하게 닳은 내 신발을 그에게 신기고、그 새신발은 내가 신었다. 결국 내 발도 서너 군데가 벗겨져서 절름발이 하산을 하게 되었으니、낯설고 먼 산에 새 신발이 당할 수밖에.

(2) 배낭의 균형

내 배낭 속에는 항시 여러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지만、그중에서도 10㎜짜리 보조자일 물과 물통 등은 언제나 먼저 챙겨지는 물건들이다.

한라산 등반을 일주일 앞둔 어느 휴일、우리 일행은 예비등반으로 북한산엘 오르게 되었다. 형제봉능선、일선사、보현봉、성곽을 타 내려 칼날능선、아카데미・하우스 뒷권능선、이런 행정이었다. 속도가 빠르고 능선이 험해서 모두가 꽤나 지쳐들 있었다. 마지막 능선 중간즘에서 배낭의 물통을 꺼내었더니 모두가 한 모금씩 달게 마셨다. 물통 하나가 완전히 비워졌다. 그러나 배낭 무게의 균형이 깨어질 수밖에. 2㎜즘 되는 바위를 비스듬히 타내려야 하는 자리가 마지막 험로다. 이때 한 여대원이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조심하라 소리지르다가 내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대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마침 아랫쪽에 있던 대원이 몸으로 나를 받았다. 나는 무사했으나、그 대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원인은 배낭의 균형 탓이었다. 한쪽이 무거우니 자칫 잘못하면 그 쪽으로 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사고는 항상 조그마한 데서 생긴다.

(3) 지휘자의 실수

周王山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오르기 편하지만、폭포와 계곡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산이다. 정상을 나 제1폭포쪽으로 하산을 하는데、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한바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지름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지름길이라지만 가본 적이 없는、지형상으로 미루어본 짐작만의 지름길이었다. 일행은 영문도 모르고 뒤따르고 있었다. 앞장선 나는 내심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계곡으로 내려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으로 밀어놓고 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이 오판이었다. 이리로 가도 절벽、저리로 가도 절벽이었다. 난감했다. 하는 수 없이 모두를 쉬게 해 놓고、젊은 대원들을 풀어서 길을 찾게 했다. 30분도 더 걸려서 그중 한 대원이 길을 찾아 내었다. 좁고 꼬불꼬불한 것이 산짐승이나 다닐 만한 길을 가까스로 내려와 보니 제3폭포 한 귀퉁이었다. 우리는 윗쪽의 제1・제2폭포를 생략하고 바로 제3폭포쪽으로 내려오고만 결과가 되었다. 게서 점심들을 지어 먹은 후 다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제2・제1폭포를 보아야 하는 역행을 하게 되었으니 지휘자의 오판은 때때로 모두에게 곤욕을 치르게 하는 법이다.

年末前에 會費 납부하여 母校支援과 獎學사업에 寄與합시다

年会費 納付현황

(理事 一般會員 ‖ 9월21일~10월23일까지)

會長團

▲감사 李弼善 ‖ 30만원

理事

◇工科大學
▲李崇賢(56) 중앙대공과대학장
▲李景勳(58) 대우중공업(주)사장
▲金顯弼(50) 유니온건재공업(주)사장
▲崔秉柱(57) 천도상사 사장

◇農科大學
▲許文道(64) 청와대 정무제1수석비서관

◇文理科大學
▲李海範(64) 대우자동차(주)전무

◇美術大學
▲任洪淳(54) 이화여대미대 교수

◇法科大學
▲金應在(52) 대양도료상사 사장
▲朴秉禎(56) 호남정유 전무
▲鄭東元(55)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이사
▲尙世煥(55) 서울신탁은행 기업분석부장
▲金貞洙(51) 대생기업 사장
▲申喆均(51) 국회의원

◇師範大學
▲金爽炫(60) 한양대인문대 교수
▲鮮于煉(51) 한국언론회관 사무총장
▲洪雅善(37) 덕성여대 학장
▲羅東星(48) 우신고등학교장
▲許錫九(57) 농업자재검사소장

◇商科大學
▲李範景(59) 동일레나운 사장
▲朴炳烈(54) 신영증권(주)부사장
▲高學模(60) 대주무역상사 사장

◇藥學大學
▲李鍾顯(59) 화터약국
▲金聲弼(59) 한국베링거인겔하임

◇醫科大學
▲姜治明(49) 제주의료원장
▲金周完(53) 서울대의대 교수

◇保健大學院
▲柳元夏(75) 보건사회부 보건국장

◇新聞大學院
▲文道彬(70) 서울신문논설위원

◇環境大學院
▲柳命夏(72) 창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 年會費 납부 안내말씀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同窓會는 크게 활성화되어가고 있읍니다. 年會費의 납부도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어 각종 사업을 이룩해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會費를 아직 내시지 않은 동문께서는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자랑스런 서울大人의 대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會費내역－

- ●一般會費……1만원
- ●理事會費……5만원
- ●常任理事……10만원
- 〈회원 3천명 이상〉……20만원
- ●監　事……3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　長……1백만원

一般會員

◇人文大學
▲이상억(68) ▲김인숙(61) ▲김종수(81) ▲박성민(87)
▲조정애(61) ▲최경희(63) ▲고영숙(74) ▲이은순(86) ▲임은순(86) ▲김윤애(58) ▲이현래(86) ▲金外淑(76) ▲빈금선(76) ▲이민희(63) ▲박태온(71) ▲경순호(61)
▲김재창(69) ▲장성욱(85) ▲이창규(86) ▲구덕건(63) ▲문평식(69) ▲김병옥(67) ▲홍광표(63) ▲김현석(56) ▲강석규(50) ▲권성태(86) ▲김성철(86) ▲조영제(82) ▲유지규(58) ▲정연철 ▲은성배(85) ▲이희수(50) ▲김준오(85) ▲윤재복(57) ▲박명하(66) ▲오희선 ▲김정원(70) ▲정동희(86) ▲배재류(85) ▲문철희(86) ▲김기홍(63) ▲김하동(84) ▲윤중석(86) ▲박만석(61) ▲장성동(77) ▲윤정훈(86) ▲장화성 ▲이광국(49) ▲심덕선(84) ▲이홍중(71) ▲김석환(86) ▲최희석(72) ▲박홍용(79) ▲박동수(85) ▲이철원(84) ▲강우석(65)
▲申勳澈(51) ▲신봉근(86) ▲김전구(58) ▲최정근(69) ▲徐明源(86) ▲이경훈(86) ▲박호창(38) ▲신승교(65) ▲윤은원(66) ▲조남익(86) ▲申仁提(83) ▲김석철(86) ▲김치홍(53) ▲최복철(75)
▲김화주(76) ▲홍인표(64) ▲임마리(86) ▲정현섭(81)

◇社會大學
▲박용규(86) ▲정재훈(86) ▲홍진석(86) ▲윤명원(85) ▲김재호(86) ▲박해선(83) ▲구윤철 ▲안진선(86) ▲홍세희(86)

◇自然大學
▲이찬서(87) ▲강병도(85) ▲안상두 ▲공성문(85) ▲박성찬 ▲이효원(87) ▲김형곤(79) ▲김영식 ▲박준웅 ▲김진하(82) ▲안재진(82)

◇家政大學
▲조현순(86) ▲김혜경(76)
▲김수향(72) ▲황인경(74) ▲조정자(65) ▲이기춘(65) ▲이선자(73) ▲박란정(80) ▲김경향 ▲이정자(81) ▲김죽희(58) ▲정양호(63) ▲정혜원(75) ▲韓相淳(50) ▲이성희(73) ▲변기원(82) ▲이위경(76) ▲柳京順(65)

◇看護學科
▲목안균(59) ▲朴文熙(63)

◇經營大學
▲김수광(87) ▲김남윤(86) ▲김신(86) ▲김재구(85) ▲김연성(86) ▲강종구(87) ▲신철호(86) ▲김일건(85) ▲문홍장(78)

◇工科大學
▲주원택(85) ▲이대호(86) ▲황인영(55) ▲황진권(55) ▲최장규(85) ▲김준호(64) ▲최홍섭(85) ▲夫大珍(63) ▲황정열(68) ▲나승혁(81) ▲정하오(58) ▲진영술(74) ▲이우형(85) ▲조형수(85) ▲白鳳根(54) ▲안병성(74) ▲郭正錫(54) ▲김연주(62) ▲남상원(81) ▲최종석(84)
▲柳承斌(71) ▲文元俊(55) ▲金公朱(55) ▲고창준(86) ▲장영수(59) ▲김광일(85) ▲조성진(86) ▲이근식(85) ▲김용길(68) ▲황상일(54) ▲羅承昊(87) ▲김동한 ▲박동훈(70) ▲강승묵(68) ▲이병호(57) ▲김종완(84) ▲차건동(74) ▲尹永寅(84) ▲임기석(67) ▲朴義東(77)

◇農科大學
▲안정환(86) ▲박영기(75) ▲김영환(62) ▲목일진(71) ▲김광섭(56) ▲고장원(59) ▲심덕로(70) ▲손중한(73) ▲김성자(67) ▲백남근(75) ▲한강완(64) ▲申相赫(62) ▲김근영(69) ▲박종배(67) ▲이미순(60) ▲權廷赫(66) ▲金炳圭(68) ▲배종선(71) ▲윤순찬(88) ▲신철준(72) ▲계경성(71) ▲손문익(65) ▲정세훈(86) ▲박형훈(59) ▲李宗勳(86) ▲신동린(67) ▲金正煥(63) ▲최현두(76) ▲권혁재(57) ▲백상덕(66) ▲김동준(57) ▲김기열(67) ▲金聖基(64) ▲김기중(75) ▲정인기(56) ▲설동섭(57) ▲이동휘(72) ▲박진명(60) ▲조병룡(86) ▲손원교(70) ▲金奇哲(56) ▲백인종(68) ▲박영인(62)
▲김용찬(61) ▲김성표(81) ▲변유식(64) ▲박건성(74) ▲이동구(73) ▲박동진(73) ▲김미령(83) ▲曺正松(65) ▲김종근(69) ▲조규열(56) ▲심명식(58) ▲김종무(63) ▲권영록(59) ▲조선열(63) ▲이병열(61) ▲김병갑(77)
▲김진묵(59) ▲이석우(63) ▲김철수(67) ▲신일선(64) ▲송기종(62) ▲노재홍(63) ▲신상우(61) ▲김용구(61) ▲김정웅 ▲김석동(70) ▲金榮喆(60) ▲김동목(58) ▲김인기(63) ▲장성원(64) ▲김영철(60) ▲구석진(83) ▲박훈(61) ▲김신호(74) ▲김영덕(82) ▲魯哲根(72) ▲이두형(57) ▲서이환(64) ▲손기성(74) ▲김기채(67) ▲김정빈(65) ▲우건석(59) ▲공홍표(82) ▲성우경(57) ▲金然權(65) ▲김성태(71) ▲김정호(78) ▲성창동(71) ▲심재섭(64) ▲金祥基(65) ▲정상동(58) ▲박선아(85) ▲박명호(66) ▲고홍석(76) ▲김재인(64) ▲강태홍(56) ▲김순심(73) ▲최진섭(58) ▲김기철(63)
▲심완조(61) ▲朴明道(66) ▲김동근(73) ▲김무진(64) ▲金浩卓(64) ▲구재윤(58) ▲송기덕(60) ▲심재영(86) ▲김옥태(65) ▲박정덕(59) ▲박호건(45) ▲박준용(59) ▲김미영(84) ▲남광우(76) ▲백인기(86) ▲성삼경(65)

◇文理科大學
▲이광찬(62) ▲최진호(71) ▲최병호(61) ▲이인영(64) ▲朱鎭旴(74) ▲권규식(57) ▲전무배(56) ▲신윤식(59) ▲이병혁(71) ▲정정일(70) ▲서기림(60) ▲송수호 ▲李演熙(55) ▲都泰均(67)
▲신재하(60) ▲신지현(57) ▲오인환(61) ▲정상열(63) ▲閔東根(50) ▲김의득(74) ▲표재영(58) ▲장회익(61) ▲이윤오(70) ▲임채원(53) ▲河榮植(58) ▲李錫烈(60) ▲김옥민(55) ▲이승철(75) ▲김진수(53) ▲김재영(53) ▲홍용근 ▲강신성(69) ▲이태욱(61) ▲이창훈(51) ▲김영웅(67) ▲박애주(51)
▲이세영(58) ▲김현익(55) ▲이수호(57) ▲홍경화(58) ▲이정배(62) ▲金泳三(52) ▲李炳漢(56) ▲崔三鎔(67) ▲심재희(58) ▲정태성(58) ▲이대환(58) ▲김옥환(58) ▲金基周(58) ▲권영설(67) ▲全海宗(47) ▲이태일(68) ▲김복혜(65) ▲김희덕(58) ▲이상준(71) ▲이진태(56) ▲李明奎(62)

◇美術大學
▲손승덕(83) ▲김은영 ▲李宴植(61) ▲박수진(84) ▲권영길(76) ▲박경희(79) ▲李容煥(59) ▲김은풍(65) ▲金姸美(86) ▲황민자(67) ▲도홍록(87)
▲이지휘(57) ▲권미경(86) ▲백선애(86) ▲元仁鍾(87) ▲高文子(66) ▲문주(86) ▲이상복(79) ▲황완숙(86) ▲장효경(86) ▲강희덕(71) ▲金惠林(85)

◇法科大學
▲황영규(56) ▲강성목(56) ▲신태길(77) ▲송선헌(84) ▲호영진(60) ▲황길주(65) ▲김영훈(60) ▲이선우(78) ▲오영진(69) ▲김의식(64) ▲홍화표(62) ▲임인택(63) ▲丁奎昇(75) ▲南興祐(39) ▲황인만(53) ▲李鍾文(34) ▲주성민(73)
▲이태권(84) ▲현복수(58) ▲지원훈(65) ▲김중양(69) ▲元佑鉉(65) ▲李大羽(71) ▲孫一根(64) ▲한경국(61) ▲윤덕순(63) ▲이정무 ▲한준엽(73) ▲박재번(77) ▲崔昇熙(67) ▲권진욱(60) ▲윤명중(59) ▲권기호(56) ▲박정선(64)

◇師範大學
▲조영옥(62) ▲강철용(76) ▲金順女(59) ▲정기준(52) ▲최동신(78) ▲장태향(64) ▲林永喆(58) ▲이재길(58) ▲정순응(32) ▲전은선(51) ▲신정옥(65)
▲이종명(58) ▲안영희(61) ▲차재병(63) ▲한인섭(60) ▲김영준(72) ▲지금수(60) ▲辛東一 ▲신용삼(48) ▲정남수(40) ▲변해명(74) ▲김월득(34)
▲趙惠玉(63) ▲구진주(85) ▲공귀섭(58) ▲朴東根(62) ▲홍성진(56) ▲이희원(79) ▲정여기(57) ▲이일규(50) ▲李東馥(57) ▲金英順(38) ▲권희정(84) ▲최헌구(74) ▲박지운(85) ▲박영호(69) ▲金大植(61) ▲유영숙(70) ▲이영주(60) ▲김환주(61) ▲朴觀泳(57) ▲권경주(58) ▲承英玉(65) ▲정은숙(61) ▲김종필(51) ▲전시진(60) ▲박성재(82) ▲권윤방 ▲이민자(63) ▲김경수(64) ▲金種河(57) ▲박강순(57) ▲이옹직(49) ▲김유선(35) ▲金道基(62) ▲박윤섭(43) ▲류재만(69) ▲金武弘(64) ▲유석종(60) ▲황선용(61) ▲고도임(58) ▲조순옥(62) ▲김만기(63) ▲서정기(57) ▲정병헌(77) ▲최동식(55)
▲이재현(48) ▲박진태(53) ▲김영준(73) ▲이병호(74) ▲전우섭(47) ▲박경자(64) ▲吳桂七(49) ▲권성헌(56) ▲김희석(74) ▲金在文(56) ▲김재환(74) ▲정풍호(61) ▲옥태권(75) ▲이광복(72) ▲하병권(57) ▲鄭淳瑛(41) ▲강한필(64) ▲김동규(75) ▲이강배(57) ▲박복구(74) ▲김채욱(60) ▲이현철(53) ▲원영옥(56) ▲이기수(52)
▲金元泰(32) ▲김익수(64) ▲金錡坤(55) ▲박병래(62) ▲조영만(82) ▲구관서(77) ▲정문용(76) ▲이우형(56) ▲박지모(77) ▲김형립(60) ▲정남재(53) ▲신기남(74) ▲김성옥(86) ▲朴貰玉(55) ▲玉世均(72) ▲유환진(69) ▲金奉圭(56) ▲이인한(86) ▲박성숙(29) ▲최정옥(50) ▲김기주(72) ▲박병철(58) ▲金允淑 ▲송미현(83) ▲이철희(59) ▲엄기준(68) ▲강옥중(58) ▲유성태(55) ▲김완(80) ▲박장순(57) ▲정덕영(66) ▲오일호(55) ▲임양순(68) ▲한경주(62) ▲지은숙(73) ▲이영자(60) ▲홍충옥(75) ▲洪酉順(33) ▲임인철(72) ▲柳明秀(65) ▲이종근(70) ▲河聖玉(47) ▲최현숙(57) ▲신기영(86)
▲강용호(57) ▲洪根一(57) ▲차정애(73) ▲황종근(80) ▲徐丙珪(43) ▲제옥례(35) ▲임창규(60) ▲허만현(56) ▲김임희(43) ▲최두문(50) ▲박종헌(58) ▲이종연(60) ▲최승선 ▲양승학(69) ▲정명진(47) ▲조상렬(39) ▲김식중(51) ▲서윤수(48) ▲김영우(59) ▲유한순(36) ▲박용성(75) ▲이규희(38) ▲민기순(72) ▲정태범(64)
▲박성규(75) ▲안종만(62) ▲임인순(62) ▲윤이중(78) ▲조원민(74) ▲심재풍(51) ▲윤기봉(81) ▲趙淸慈(65) ▲정봉화(64) ▲홍원석(63) ▲나고찬(56) ▲具憲會(55) ▲김석훈(79) ▲姜永三(63) ▲주락서(61) ▲趙翊來(56) ▲양긍연(54) ▲박옥련(46) ▲卓元玲(71)
▲나동성(48) ▲오홍재(75) ▲정중일(56) ▲이화영(53) ▲김학준(48) ▲장병지(61) ▲최위동(55) ▲류순주 ▲명기섭(55) ▲김종오(64) ▲김정완(57) ▲박정남(57) ▲정복술(32) ▲이강섭(73) ▲계형보(51) ▲한상규(64) ▲마귀남(35) ▲裵乙順(33) ▲김의상(45)

◇商科大學
▲백홍기(59) ▲김현주(63) ▲전하길(56) ▲김종남(64) ▲安明吉(65) ▲李秉乾(45) ▲유병언 ▲민창기(64) ▲류근춘(85) ▲위성복(64) ▲김범수(65) ▲조동식(59) ▲장경범(61) ▲최진석(62) ▲고범준(39) ▲洪在益(43) ▲유동기(65) ▲서동은(64) ▲김철녕(57) ▲具英治(66) ▲백낙민(64) ▲최병향(58) ▲차병권(50) ▲이용진(72)
▲박만옥(62) ▲황봉섭(54) ▲임종홍(63) ▲이한희(58) ▲한국종(67) ▲우일균(56) ▲백승직(60) ▲백호익(65) ▲趙政振(57) ▲朴太一(66) ▲배윤환 ▲조수영(66) ▲吳壎元 ▲윤양현(59) ▲朴昇(61) ▲임현섭(57) ▲蔡炳允(63) ▲장동수(66) ▲경연소(62) ▲金演祚(62) ▲沈根燮(64) ▲許瀅培(55) ▲손명환(65) ▲조경식(59)

◇獸醫科大學
▲아대영(56) ▲김순원(59) ▲목선균(73) ▲김영식(63) ▲박응두(58) ▲김재하(56) ▲최철순(62) ▲윤정희(86) ▲최위영(64) ▲조희표(55)
▲趙亨基(58) ▲李衡九(52) ▲조남인(69) ▲서승창(58) ▲金基洪(56) ▲성기분(58) ▲李康訓(64) ▲김정오(66) ▲김선중(66) ▲이원창(58)

◇藥學大學
▲黃浣(58) ▲김이수(63) ▲박정희(55) ▲권영환(58) ▲潘聖鎬(65) ▲정양순(50) ▲박정규(64) ▲신화용(50)
▲공영석(57) ▲박창규(56) ▲김성진(56) ▲조원익(73) ▲허란(57) ▲이재우(58) ▲朴炳國(63) ▲권오탁(64)
▲윤의섭(58) ▲최형식(57) ▲임순태(49) ▲임철수(60) ▲김종욱(63) ▲공영주(63) ▲원종민(80) ▲신철교(79) ▲정대규(43) ▲채계화(55)
▲신정균(59) ▲이정자(64) ▲차경로(66) ▲김학균(55) ▲朴浩洙(53) ▲朴榮吉(65) ▲이병선(49) ▲백성기(63) ▲윤능혁(60) ▲송정현(38)

◇音樂大學
▲서혜순(70) ▲박치호(62) ▲김자경(86) ▲박종서(82) ▲조연회(86) ▲조갑순(73) ▲이용일(61) ▲박노경(87) ▲정미향(85) ▲서경선(64) ▲김희자(59)
▲李秉調(55) ▲김무자(65) ▲이단열(67) ▲明順子(64) ▲趙東建(57) ▲윤기숙(86) ▲차형균(66) ▲이남수(53) ▲이기진(78) ▲김수혜(66) ▲이영자(59)

◇醫科大學
▲손병선(48) ▲이문규(81) ▲趙京杉(73) ▲정영균(80) ▲박영행(69) ▲정영훈(79) ▲朴助烈(58) ▲구철희(57) ▲이명욱(71) ▲박장미(85) ▲정원영(53) ▲김영택(52) ▲조사선(79) ▲홍영식(67) ▲정영희(47) ▲李星雨(69) ▲이재웅(51) ▲홍원선(77) ▲황순욱(78) ▲이상운(77) ▲柳炯奎(57) ▲서준근(57) ▲김지(75) ▲윤성주(84) ▲김진영(56) ▲이상문(71) ▲李大圭(53) ▲배재문(86) ▲金京來(80) ▲엄길순(73) ▲오도영(26) ▲오세기(62) ▲김애경(84) ▲정진영(84) ▲남송현(78) ▲신용우(72) ▲홍정용(78) ▲김학진(51) ▲이필양 ▲김창은(61) ▲權五仲(79) ▲李學重(58)
▲김동진(74) ▲김지산(30) ▲박신근(68) ▲전호승(85) ▲김현우(70) ▲오원혁(85) ▲주영식(76) ▲이상익(85) ▲최관흠(58) ▲유원하(66) ▲이명자(74) ▲황규갑(77) ▲金道鎭(49) ▲방운희 ▲박현수(74) ▲이우경(86) ▲박동림(56) ▲김순배(84) ▲이명희(78) ▲진동규(84) ▲조병규(70) ▲이훈용(78) ▲윤병철(84) ▲이종선(70) ▲이종희(76) ▲김면호(80) ▲유성기(81) ▲이용섭(58) ▲유혜숙(59) ▲접동우 ▲장환식(79) ▲원정연(77) ▲임종윤(72) ▲손효정(73) ▲김대영(74) ▲김원홍(85) ▲노국용(58) ▲전희태(52) ▲김학래(56) ▲김유성(80) ▲한명채(64) ▲방덕환(59)
▲이경희(66)

◇齒科大學
▲장왕식 ▲김정태(74) ▲김원표(74) ▲金種文(56) ▲김민수(60) ▲허정국(59) ▲林鎔準(72) ▲박은기(79) ▲강희재(50) ▲이점식(68) ▲최치갑(68) ▲채영재(55) ▲이신행(67) ▲한중희(72) ▲공만석(76) ▲최현배 ▲조행작(70) ▲조세행(59) ▲조성옥(57) ▲한수부(67) ▲김상옥(73) ▲송우화(57)
▲도정욱(80) ▲김명득(65) ▲최인성(76) ▲정종평(69) ▲정상훈(77) ▲김한경(69) ▲전훈식(65) ▲김남주(59) ▲오익규(45) ▲朱義烈(56) ▲편창훈(62) ▲김수경(63) ▲황성명(55) ▲강석봉(59) ▲金鍾斗(59) ▲강민선(73) ▲김영호(62) ▲김헌일(67) ▲李圭衡(55) ▲임경모(59) ▲방수남(68)

◇大學院
▲이운경(73) ▲김용근(79) ▲정민희(68) ▲이상훈(86)

◇經營大學院
▲鄭榮均(67) ▲정용근(71) ▲임영녹(75)

◇保健大學院
▲홍재웅(69) ▲曺泳株(70)

◇新聞大學院
▲徐康和(74) ▲강대근(76) ▲최장석(74)

◇行政大學院
▲이동호(74) ▲김명진(69) ▲金寶煥(77) ▲송항섭(70) ▲박성달(65) ▲李康熙(69) ▲李元鎬(64) ▲홍동호(85)

◇環境大學院
▲박두익(85) ▲김한수(87) ▲이재근(81) ▲장기화(73) ▲한진욱 ▲한상현(82) ▲방제환 ▲최찬환(77)

◇未詳
▲성기중(64) ▲손근석 ▲문주동 ▲정승주 ▲주락서 ▲김우기 ▲김재규 ▲김준평 ▲김종헌

同門作家短篇選

춘치 (下)

徐廷仁 〈62년 文理大卒 · 全南大교수〉

춘치

왜, 가게? 더 놀다가 점심먹고 가. 공장 노무직사원이 쉽겠어? 요즈음 일 부탁 아마 어려운 찾아볼 생각 람들 니면 어른을 도 안 하지. 국수 삶아먹을까? 뽑아 놓은지 오래되어서 곰팡이나 안 피었는지 몰라. 냉동실에 넣어 놓아서 괜찮을 거야. 냉장고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지? 과자랑 사탕이랑 들어. 맛이 없지? 우리 집에 오기가 얼마 달 거야. 나라 산업 미영화하고 풍요로운 총천연색 영화지. 한 실내장식이 고급식당의 화려와야 극의 분위기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겠어? 언제까지 우중충한 흑백 화면으로 색맹 예술을 방치하려는지. 오늘날은 세계가 한 가족이어서 돈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방금 나온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말로만 조국근대화하면 될 해, 방송부터 천연색으로 근대화해야지. 이제는 사진도 흑백은 싱거워서 못 찍겠어. 천연색 환등기 보여줄까? 한 사백 장 되는데, 다 두 시간 걸려. 보자면 개인적으로 물건이 많고 값이 싼 모양이야. 이렇게 와 주어서 고마워. 하사장한테 신세진 것이 인, 뭐? 인숙이? 인숙이 하나뿐인가? 바쁘고 밤에 거느린 식구가 많아서 하나하나 신경을 다쓰지 못할 거야. 소홀하고서 운한 점이 있더라도 생각해 줘. 돈이 있으면 사람이 오만해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쩔수 없는 노릇 아니야? 원래 사람이 나쁜 것은 아니지. 입장이 다르면 같은 일도 달리 보이지 않겠어? 뺏겼다고 생각되는 것은 노동자뿐만이 아닐 거야. 내가 하사장을 두둔하자는 건 아니야. 하사장처럼 야비한 사람도 없어. 건방진 것은 비열하기 때문이 아니겠어?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천박하다는 건 아니야. 고상하게 호색할 수도 있겠지. 하사장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는 짐승으로 만족이야. 병원? 사장이? 아, 그건 사장 아버지야. 뇌졸중으로 졸도를 했는데 지금 회복 중에 있어. 노인이 한 번 지워진 기억을 되찾으려고 사신과 투쟁을 하고 있지. 나이가 나이인데 잃어 버린 과거가 쉽사리 되돌아오겠어? 저승사자가 숨통 조이기를 늦췄던 모양이야. 왼쪽 금이 기별이 왔어. 손가락끝이 어렵풋이 지난날을 생각해 낸거야. 오른 쪽 절반은 쓰러지기 전의 일들을 까맣게 잊어 버렸구. 나는 거기서 우리들의 삶이라는 딴 게 아니고 기억이라는 것을 알았어. 그 기억 속에서는 이득과 손실의 기억은 거의 기억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고, 손가락이 굽는다는 것을 일센티 기억했느냐 이 센티 기억했느냐가 치명적으로 중요했어. 노인에게 손익계산은 이제 아무 뜻이 없었지. 사장 너무 믿지 마. 앞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뒤는 옷이 찢어지고 떨어져서 속옷이 온통 드러난 희극배우가 있었어. 그것이 사장의 모습이었지. 그리서 보기는 좋지. 가가이서 보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항상 가까이서 보았지. 인숙이? 인실이? 인실이는 항상 멀리서 보았고. 나는 그래서 어쩌다 멀리서 보면,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실이도 혹 가까이서 보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 거야. 인실이가 사장한테 폐 많이 쳤다고 인사하려 와서 나끼는 오래간만에 사장의 먼 모습을 보았고, 인실이는 내 모습을 보았지. 사장의 모습을 보았게나 앞뒤없는 말을 아무렇게 지껄이는 바람에 사장의 가까운 모습을 보았어. 나는 인실이가 이렇게 날아 찾아준 것이 여간고마운 게 아니야. 더러 사장의 가까운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런 데 주름 잡는다고 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 또 뭐라고 하고 번데기앞에서 문자 쓴다고 하고, 공자님 앞에서 치밀어. 공자님 앞에서 문 해야 할 때면, 나는 화가 나는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 하는 것을 그것을 잘 잘 모르는 것을 중언부언 하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중언부언 설명 하고 내가 잘 모 들어야 하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중언부언 설명 하고 내가 잘 모 들어야 하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중언부언 설명 하고 내가 잘 모 밖에 없지 않어? 그럴때 면 나는 지겨워. 내가 잘 의 먼 모습을 보여 줄수 무도 잘 알고 있는 사장 사람들한테 나는 그들이 너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런 테 보여주려고 찾아오는 나한 장의 가까운 모습을 리서 보면 희한하다는 생 마운 게 아니야. 더러 사 각이 드는데, 인실이도 혹 날 찾아준 것이 여간고마 가까이서 보면 말도 안된 어. 나는 인실이가 이렇게 다고 생각할 거야. 인실이 장의 가까운 모습을 보았 가 사장한테 폐 많이 게나 지껄이는 바람에 사 앞뒤없는 말을 아무렇 는 인실이는 내 모습을 보았고, 인실이는 내 가 사장의 먼 모습을 보여 줄수 있는 것을 그것을 잘 잘 모 면 나는 지겨워. 내가 그럴때 밖에 없지 않어? 그럴때 면 나는 지겨워. 내가 잘 의 먼 모습을 보여 줄수 무도 잘 알고 있는 사장 사람들한테 나는 그들이 너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런 테 보여주려고 찾아오는 나한 장의 가까운 모습을 리서 보면 희한하다는 생 마운 게 아니야. 더러 사 각이 드는데, 인실이도 혹 날 찾아준 것이 여간고마 가까이서 보면 말도 안된 어. 나는 인실이가 이렇게 다고 생각할 거야. 인실이 장 사장한테 폐 많이 가 사장한테 폐 많이 쳤다고 인사하려 와서 나끼 는 오래간만에 사장의 먼 모습을 보았고, 인실이는 내 가 앞뒤없는 말을 아무렇 게나 지껄이는 바람에 사 장의 가까운 모습을 보았 어. 나는 인실이가 이렇게 날 찾아준 것이 여간고마 운 게 아니야. 더러 사 장의 가까운 모습을 나한 테 보여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런 데 주름 잡는다고 하지? 내가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알고 또 뭐라고 하고 번데기앞 에서 문자 쓴다고 하고, 공자님 앞에서 문 치밀어. 공자님 앞에서 문 해야 할 때면, 나는 화가 나는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 하는 것을 그것을 잘 잘 모 르는 것을 중언부언 설명 하고 내가 잘 모 들어야 하고 내가 잘 아는 것을 중언부언 설명 하고 내가 잘 모 밖에 없지 않어? 그럴때 면 나는 지겨워. 내가 잘 의 먼 모습을 보여 줄수 무도 잘 알고 있는 사장 사람들한테 나는 그들이 너 사람들이 왜 없겠어. 그런 데

母校소식

總學生會 정식 출범

12년만에 인정… 회장에 朴弘淳군

모교 총학생회가 12년만에 공식으로 인정을 받아 지난 9월 29일 출범식을 가졌다.

24·25 양일간에 실시된 투표에서는 회장에 朴弘淳군이, 부회장에는 李鍾一군이 각각 선출되었다.

1지망서 80% 선발

內申반영 30%로 낮춰

百5學科중 63科 2外國語 필수

入試요강확정

모교는 지난 13일 선지원 후시험으로 처음실시되는 88학년도 입학시험에서 모집인원의 80%는 제1지망자중에서 선발하고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87학년도 40%에서 30%로 낮추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88학년도 대학입학요강」을 확정, 문교부에 승인요청했다.

모교가 마련한 이 요강에 따르면 모집인원의 80%는 제1지망자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20%는 제1지망 탈락자와 제2지망자중에서 선발하되 그래도 미달일 경우에 한해 제3지망자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해 인문대 사회대 법대등 8개대학과 사범대 인문계열 농대 농경제학과 의대간호학과등은 필수적으로 제2외국어 5개과목(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서반아어)중 1개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모교의 1백5개 설치학과중 63개학과는 제2외국어가 필수선택과목이 됐다. 나머지 42개 학과는 종전대로 실업5개과목 및 제2외국어 5개과목등 총10개 선택과목중 1개과목을 자유선택토록 했다.

모교는 이와함께 지난 87학년도 입시에서 40%를 반영하던 고교내신성적비율을 30%로 낮추고 동일계 가산점과 논술고사제도는 폐지했다.

또 종전에는 동점자가운데 합격자를 가려내거나 합격여부에만 활용하던 면접고사를 사범대의 경우에만 이를 점수화해 총점의 2%(10점·체육교육과는 20점)를 반영토록했다.

이밖에 지원자중 입학시험성적이 다른 지원자보다 현격히 떨어져 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위로는 합격권내에 들더라도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로한 선발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모교는 이날 입학시험 전형일정도 확정, ▲지원서교부는 11월23~30일 ▲지원서접수 11월27~30일 ▲수험표교부 12월21일 ▲학력고사 12월22일(전국 동시실시) ▲면접 12월23일(단 사범대는 23·24일) ▲실기고사 대상자 예비소집 12월23일 ▲실기고사 12월24~29일 ▲합격자발표 88년1월4일 ▲신체검사 88년1월5、6일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이중 12월22일에 치르는 학력고사는 오전8시10분에 고사실입실을 완료해 오후5시10분까지 9시간동안 실시키로 했다.

模擬 國際私法裁判 열려

법과대학 國際法學會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 문화관 소강당에서 「국제분쟁」이라는 事案으로 제22회 模擬 國際私法裁判을 개최했다.

이번 재판의 내용은 국제하천의 非航海目的利用과 하천인접국의 水資源 및 환경보호에 관한 法的問題로 근래의 「금강산댐」 건설계획과 연관되어 눈길을 끌었다.

교수협의회 첫 이사회 개최

「學園自律化 추진위원회」 구성

教授協議會(회장:邊衡尹교수)는 지난 5일오후 6시 교수회관에서 첫이사회를 열어, 공석중인 5명의 부회장을 선출하고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회장은 인문·사회계열, 수원·연건캠퍼스, 자연·공대계열, 그외 등으로 나누어 人選이 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4개분과 약 30여명의 전문교수들이 참여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수협의회의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사는 교수협의회 정관(제5조)에 의거, 1백명이하인 대학은 2명, 1백명이상인 대학은 3명씩 선출하였다. 각 단과대학(원)에서 선출된 교수협의회 이사는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科, 職級)

▲인문대: 金學主(중문、교수) 李誠元(영문、조교수) 李明賢(철학、부교수) ▲사회대: 安秉直(경제、교수) 林玄鎭(사회·부교수) ▲가정대: 李基春(가정관리、교수) 安承堯(식품영양、교수) ▲경영대: 金植鉉(경영、교수) 趙東成(경영、부교수) ▲공대: 尹悰奎(금속공、교수) 李教一(기계설계、부교수) 權旭鉉(제어계측、부교수) ▲농대: 韓仁圭(축산、교수) 潘性紈(농경제、교수) ▲미대: 河東哲(서양화、전강) 張昊翼(산미、조교수) ▲법대: 金東熙(공법·교수) 梁彰洙(사법·전임강사) ▲사대: 沈明鎬(영어교육·교수) 趙升濟(수학교육·부교수) ▲수의대: 馬点述(수의·교수) 崔熙仁(수의·교수) ▲약대: 高光浩(약학·부교수) 崔應七(제약·부교수) ▲음대: 李建鏞(작곡·조교수) 金正圭(기악·부교수) ▲의대: 金周完(의학·교수) 金鎭永(의학·교수) 朴聖會(의학·조교수) ▲치대: 孫性熙(교수) 鄭鍾平(부교수) ▲보건대학원: 洪在雄(보건관리·부교수) ▲행정대학원: 金光雄(교수) ▲환경대학원: 金炯國(환경계획·부교수) ▲생약연구소: 金濟勳(교수)

기초과정 시험

실시방법 변경

75년 1학기 이후 수업과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던 기초과정공통과목에 대한 중간·기말시험이 이번학기부터 담당교수별로 실시되게 된다. 이는 지난 1학기부터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오던 일인데, 李賢九교무처장은 「시험기간중의 수업불가능으로 인한 수업일수의 결손을 막고, 교수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과업무를 보다 조직적으로 하고 본부는 그 지원만을 해나가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이로 인하여 국어·한국사·수학·화학등 공통출제 과목은 수업이 없는 오후 늦게 과목별로 시험을 보게될 전망이다.

언론기구의 자율성 회복위한

「言論협의회」 발족

모교내 각 언론기구의 자율성 회복 및 역량강화, 전 관악차원의 언론논의 구조 확립, 새로운 언론매체의 개발등을 목적으로 한 「서울대학교언론협의회」 발족식이 지난 9월30일 있었다.

언론민주화 공청회를 겸해 열린 이날 발족식에서 언론협의회의장 김유광君(SUB·기계설계4)은 언론협의회가 『관악 2만 학우속에 잠재한 애국심을 발굴, 표면화시키고 이를 조직화하여 진정 조국의 민주와 통일에의 밑거름이 되는 언론을 구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발족식에 이어서 民言協 의장 宋建鎬氏의 「民主化와 언론」, 그리고 한길사 대표 金彦鎬氏의 「민족출판문화운동」이란 주제의 강연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돼 참석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공개행사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언론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는데 이자리에서 회칙을 확정짓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로써 84년도에 발족, 自由言論 발간등 활발한 활동을 했던 「서울대 언론협의체」가 86년 해체된 후 1년만에 다시 언론협의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大學新聞 단대편집실, 방송국등으로 구성된 언론협의회는 11월 중순에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재 각 대학의 신문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사징계 줄어

절대평가제실시로

지난 1학기 학사징계자는 총 1천45명으로 전체학생 2만1천9백9명중의 4.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징계내용별로 보면 학사경고가 9백34명, 학사근신이 62명, 학사제명이 49명으로 지난 6월과 9월의 시험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학사경고 9백61명, 학사근신 94명, 학사제명 1백36명, 총1천1백91명에 비하여 모두 각각 줄어든 것이다.

이는 기초과정 시험거부로 1학년의 학사경고자수는 단대에 따라 크게 늘어난데 반하여 2학년이상의 전공과정학점처리기준이 절대평가제로 되어 징계자가 줄어든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대별로는 공대가 2백24명으로 가장 많고, 자연대 1백82명, 농대 1백76명의 순이다. 그중 공대는 작년보다 학사경고자가 13명이 늘어나 학사경고 중가인원도 가장 많았다.